



[종합] 현대백면세점 두타매장 인수 '규모의 경제'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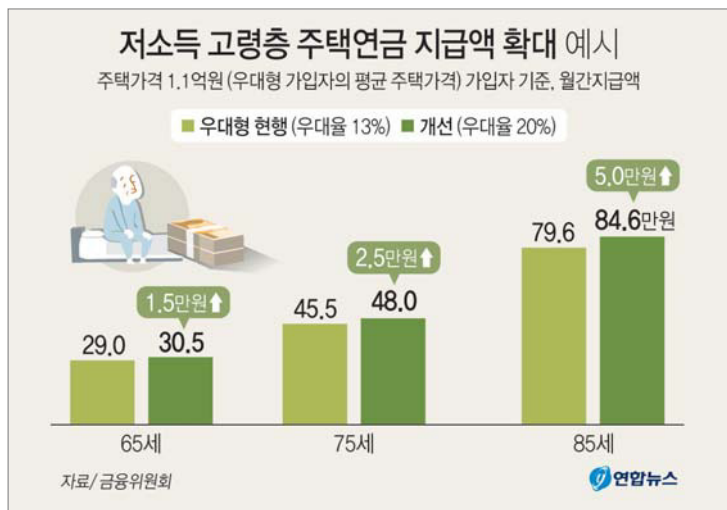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2122.45 (-18.47)	코스닥	661.85 (-3.29)
금리 (우대율 0%)	1.51 (-0.05)	환율 (원/달러)	1167.80 (+7.00) (13일)

# 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 공시가 9억 이하면 허용

정부, 인구정책 TF결과 발표 연령 낮추고 주택대상 확대 취약층 우대율도 20%로 ↑ 배우자 연금 자동승계 개선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대상주택의 가격 기준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우대율도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확대된다. 주택연금의 가입문턱을 낮추고 지급 금액을 확대해 노후보장에 충분한 자금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

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인구정책 TF는 지난 4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은 우선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 해석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서 형성되는 만큼 시가 13억원 안팎까지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가입주택 대상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단 전세

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은 주택소유권을 주공공으로 이전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도 확대한다. 대상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로, 지급액 우대율은 최대 13%에서 20%로 늘어난다.

자녀 동의를 없애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던 부분도 개선한다. 가입자가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했다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은 자동 승계된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수준)으로 임대 거주할 수 있다.

3면에 계속

**社告**

## 메트로경제 '제4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

2016년 3월, '바둑의 신'으로 불렸던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을 압도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후 인공지능 산업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달해 우리 주위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스피커 형태로, 또는 의료 지원 형태로, 또는 공장자동화 형태로 상용화됐습니다.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붙속 다가온 것입니다.

메트로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에 자리 잡을지 등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미 지난 1~2회(2016~2017년)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도 메트로경제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 주 제 :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AI)
- 일 시 : 2019년 11월 21일(목) 09:00~11:30분
- 장 소 :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메트로경제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 기조강연: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前 인공지능연구원장)
  -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SK텔레콤 이종민 상무, 이스트소프트 조성민 본부장, 네이버 신성진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
- 참가비 : 사전등록시 무료(현장 신청 5만원)
- 참가신청 및 문의: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metro



내 자리는 어디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취업자 수 42만명 늘었지만 3040대·제조업은 고용한파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10월 취업자 수가 42만명 가까이 늘어나며 3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률은 10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하지만 주요 고용 지표는 개선됐지만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도 엿보인다. 고용시장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취업자 수가 17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감소하고 주력산업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0만9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1만9000명 증가했다.

이번 취업자 증가 폭은 2017년 3월(46만3000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던 8월(45만

2000명)에는 못 미치지만, 9월(34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증가폭은 8월을 제외한다면 2017년 4월(42만명) 이후 가장 크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2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9만6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반면 제조업(-8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7000명), 금융 및 보험업(-5만4000명) 등에서 줄어 들었다.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인 제조업은 지난 3월(-10만8000명) 이후 감소 폭이 10만명대 아래였다가 9월(-11만1000명)에 다시 감소 폭을 키웠으나 지난달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3면에 계속)

/석대성 기자 bigstar@

## 與, '청년신도시' 만지작... 2030 표심 잡을까

민주당, 내년 총선 공약 검토 주가·일자리·보육 아우르는 청년·신혼부부 복지확대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청년 신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창업·취업은 물론 출산·육아까지 책임지는 '2030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구상이지만, 진보권 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산하 정치 연구기관 민주당연구원은 서울 인

근 3기 신도시 일부를 '청년 신도시'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구상 중이다.

'청년 신도시'는 기존 청년 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을 결합한 신개념 도시다. 현재 물망에 오른 곳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근접해 출·퇴근이 수월한 지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정책인 만큼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한 뒤 대상 지역을 확대·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 기능을 넘어 청년·신혼부부의 복

지를 확대한다는 게 목적이다. 주거·보육·일자리 등 1석 3조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주거의 경우 분양이 아닌 임대 중심 공급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일상에서의 어려움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당 정책위와 민주당 구원이 이같은 대형 정책 공약을 다듬어 이르면 연내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권의 청년 맞춤형 제도 구상은 20·30대 청년·신혼부부 지원 대책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진 의문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의 비위 의혹 사태 이후 청년층 민심이 이반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던 문제 의식이 커졌기 때문에 이같이 파격적인 공약을 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진보권 인사는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 신도시 입주 자격과 수요 등은 물론 편향적인 도시 조성이라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분석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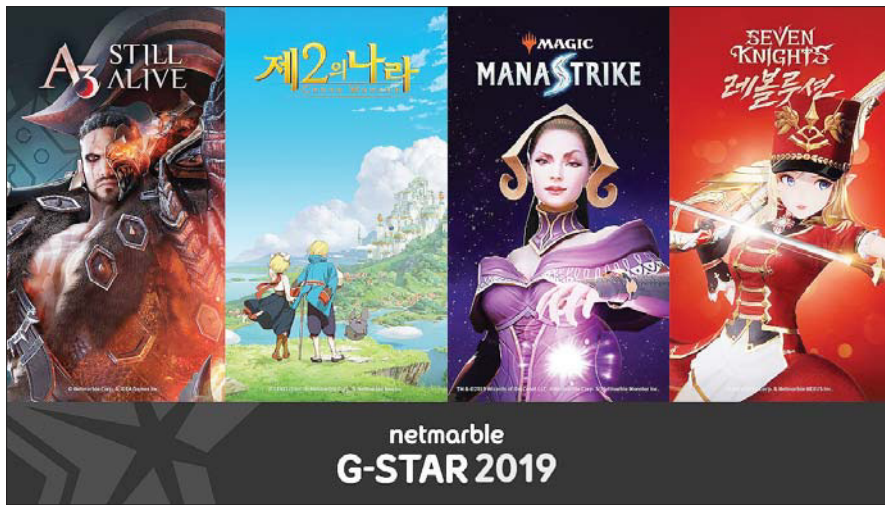
메트로신문 '수능문제 및 답안' 특별판 오후 발행



# 넷마블 등 신작 공개... 하반기 게임시장 패권 가린다

## 국내 최대 게임박 '지스타' 개막

게임업계 '빅3' 중 넷마블만 참가  
넷마블 '제2의 나라' 등 신작 2종  
슈퍼셀, 공식 유튜브채널 통해  
'브롤스타즈 월드파이널' 생중계



넷마블 지스타 부스 조감도(위)와 넷마블 '지스타2019' 출품작 이미지. /필어비스, 넷마블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 '지스타 2019'가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간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지스타는 국내 게임업계 '빅3' 중 넷마블만 참석해 흥행 열기가 식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슈퍼셀'을 포함 2년 연속 해외 게임사가 메인 스폰서를 맡으며, 글로벌 게임 행사로 도약했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이번 지스타는 국내 및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찾아 '보는 게임'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非) 게임사들의 참가도 늘어 박람회 구성도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13일 지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지스타 2019는 9월 기준, 2894부스(BTC관 1789부스, BTB관 1105부스)를 기록했다. 올해 지스타 BTC관은 조기신청 접수 2시간 만에 전시 면적이 모두 소진되며, 관람객 2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넥슨 빈자리, 넷마블·필어비스 신작 들어선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넥슨의 불참에도 넷마블과 필어비스를 필두로 다양한 신작들이 공개될 전망이다. 게임사들의 하반기 게임 시장 패권을 미리 전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100부스를 마련한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 전용 250여

대의 시연대로 마련했다. 넷마블은 이번 지스타 라인업으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제2의 나라' 등 미공개 신작 2종에 'A3: 스틸 얼라이브', '매직: 마나 스트라이크' 등 총 4종의 모바일 게임을 내보낸다.

최초로 선보이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넷마블의 인기 모바일 게임인 '세

븐나이츠' IP를 활용한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이 게임은 세븐나이츠 영웅들이 사라진 이후 혼돈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사관 이야기다.

제2의 나라는 동화풍 애니메이션 감성이 특징이다. 모험과 여정의 스토리에 카툰렌더링 방식의 3D 그래픽을 접목했다. '킹덤'이라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른 이용자와 협력해 길드를 발전시키는 '소셜 시스템'이 강점이다.

단일 업체로는 최대 규모인 200부스로 지스타에 참가하는 필어비스도 눈에 띈다. 필어비스는 액션 배틀 로얄 '새도우 아레나'를 비롯해 프로젝트 K, 프로젝트 V, 프로젝트 CD 신작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필어비스가 지난해 인수한 아이슬란드 게임사 CCP게임즈는 PC 온라인게임 '이브 온라인'의 한글화 버전을 최초로 공개하고 지스타 첫날인 1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외에도 슈퍼셀, 크래프톤, 그라비티 등 국내·외 업체 600여곳이 참가한다.

### ◆'보는 게임'이 대세로...비(非)게임사 지스타 찾는 이유는?

이번 지스타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의 '보는 게임'이 대세로 떠오를 전망이다. 필어비스는 글로벌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라이브 스트리밍 부스를 설치한

다고 밝혔다. 글로벌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은 필어비스가 소개하는 신작과 게임 시연을 직접 라이브로 생방송할 예정이다.

지스타 메인 스폰서인 슈퍼셀은 15일, 16일 브롤스타즈 세계 최강팀을 가리는 '브롤스타즈 월드 파이널'을 연다. 모든 경기는 브롤스타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비(非)게임사들도 지스타를 찾는다. 올해 지스타에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인 유튜브가 처음으로 참가한다. 아프리카TV도 지난해 60부스에서 올해 100부스로 확장한 규모로 참석한다. 아프리카TV는 14일부터 17일까지 ▲철권7 ▲피파온라인4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등 다양한 종목으로 캐주얼 e스포츠 리그 'BJ 멸망전'을 연다.

LG유플러스의 참가도 눈에 띈다.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게임을 선보이기 위해 이동통신사 최초로 지스타에 참가한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사업자 엔비디아와 손잡고 다운로드 없이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과 PC로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 '지포스 나우'를 국내에 단독으로 개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지스타 개막 첫 날 지포스나우의 시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현대중

# EU 공정위서 합병심사 진행

## 대우조선

### 국내 비롯 총 6개국서 기업결합심사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시간)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유럽이 일본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혀온 만큼 이번 결과에

따라 양사 합병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중공업 계동사옥

## 3대 소비생활 '의·식·주→식·주·금융' 전환

### 한국소비자원, 21.4% '식품·외식'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소비생활분야는 '식(식품·외식)'과 '주(주거·가구)', '금융(금융·보험)'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세 이상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 조사한 '2019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21.4%가 '식품·외식'을 소비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어 '주거·가구'(12%), '금융·보험'(11.4%) 등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생활 11개 분야 중 '금융·보험'이 3순위 안에 포함된 것은 2013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계속 3순위 안에 포함됐던 의류는 이번 조사에서 병원·의료, 교육에

이어 중요도가 6순위로 밀려났다. 식품·외식 분야는 지금까지 4번의 조사에서 계속 1위를 차지했으나 중요도 비중은 2013년 첫 조사 때 40.8%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종합 소비생활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9.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2017년 조사 때의 76.6점보다는 하락했지만 2015년 63.8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소비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71점을 받은 식품·외식이었다. 금융·보험은 67.9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응답자 중 52.6%는 지난 2년간 11개 소비생활분야 26개 품목에서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식품·외식이었고 이어 정보통신, 의료 순이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日·홍콩 영향... 출국자수 2개월째 둔화

아웃바운드 의존 항공업계 '타격'  
'인바운드 확대해야' 목소리 커져

최근 내국인 출국자수가 둔화되면서 항공업계에 '인바운드'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 7월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항공업계는 여행객이 급감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 노선에 더불어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단거리 노선에 집중해왔던 저비용 항공사들의 타격은 훨씬 컸다. 일본·홍콩 노선을 대체할 만한 지역을 찾지 못해 결국 내국인 출국자 수가 전년 대비 급감하자 항공업계 내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하는 '인바운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지난 7월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더니 결국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기 시작했다.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7월 기준 전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6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오름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8월 출국자 수는 243만명을 기록하며 지난 2018년 8월(252만명) 대비 3.7% 감소했고 9월에도 205만명의 내국인이 출국해 7.9%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내국인 출국자 수가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내국인 출국자 수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는 일본·홍콩 노선의 영향이 크다. 일본여행 보이콧과 홍콩 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모습. /뉴스1

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일본 및 홍콩행 여객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일본행을 택한 한국인의 수요는 56만명이었지만 무역 규제 이슈 등이 발생하면서 ▲8월 31만명 ▲9월 20만명으로 줄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58.1% 감소한 수치다.

올해 3월 말부터 시작된 홍콩의 송환법 관련 시위도 장기화되면서 최근 들어 홍콩행을 택하는 여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 2월 14만명이었던 홍콩행 출국자 수는 지난 7월 절반가량인 7만8000여명으로 줄더니, 9월에는 전년 대비 59.4% 감소한 4만명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자, 항공업계에서는 '인바운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여행 보이콧·홍콩 시위 장기화 등으로 아웃바운드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에 크게 의존하던 항공사들이 속수무책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늪어가는 한국號... '집 유동화'로 베이비부머 노후안정

## 정부, 인구정책 TF결과 발표

국민 절반 이상 노후준비 안돼  
가입연령·집값·요건 모두 낮춰

3억주택 보유 55세에 月46만원  
주택 공시가격도 9억으로 조정

13일 정부가 내놓은 노후 대비 자산 형성 방안은 먼저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유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된 탓이다. 특히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의 경우 국민연금을 보완해 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주택연금 가입률은 작년 기준 1.5%로 주요국 대비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국민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은 가입문턱을 대폭 낮췄다. 가입연령과 주택가격, 주택요건을 모두 넓혔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연령은 부부 중 연장자 기준으로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내려간다. 이미 퇴직했지만 마땅한 소득이 없는 베이비부머들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55세 가입자라면 월 46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시가 9억원이었던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 9억원으로 현실화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경우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한을 폐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배우자의 수급권도 강화했다. 유언 대용신탁 등을 활용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토록 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았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가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저조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에 그친다. 이와 함께 대부분 퇴직금 처립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1.9%(계좌수 기준)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더 저조하다. 지난 2017년 기준 12.6%로 10명 중 한 명만 가입 중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발의돼 있는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해 퇴직금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기존 퇴

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춘다.

수익률제고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금은 수수료가 수익률이 아닌 적립금 규모에 연동돼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서비스 수준이나 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퇴직급여법 개정안(김태년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개인연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의 만기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지금 연 1800만원인 연금계좌 불입한도에 ISA 만기 계좌금액이 더해지며, 300만원 한도로 추가 불입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50세 이상 장년층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늘린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이 된다. 단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고소득자는 제외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1년 '주택연금 55세부터'서 계속

연금소득세율 퇴직소득세의 60%로 하향해 '세제 혜택'도

단 소유자가 병원, 요양(시설)소에 입원하거나, 자녀병양으로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 의무화한다.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1.9%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도입의무화 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한다. 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한다.

청년층과 장년층이 연금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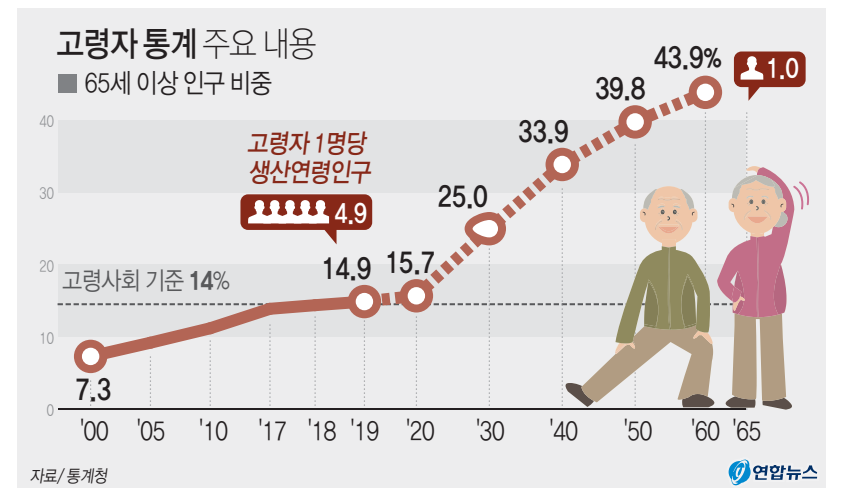
할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청장년층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의 만기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경우 개인연금(IRP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개인연금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일임형 제도를 도입한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 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주택연금으로 노후보장을 위한 자금이 창출될 수 있게 하고, 청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포스코,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인재 육성

## 호주 원료공급사 안콜과 협약 체결 연 10만 달러 규모 사회적펀드 운영

포스코가 글로벌 원료공급사와 매칭펀드를 조성해 인재육성 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포스코는 13일 호주 시드니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라인홀트 슈미트 안콜 CEO(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콜과 'GEM 매칭펀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EM은 '보석'이라는 사전적 의미 외에 기업시민 포스코가 사회발전엔 한 걸음 더 나아가자(Go Extra Mile)는 뜻도 담고 있다.

세계 3위의 석탄공급사인 안콜은 포스코가 1981년 호주에 최초로 투자한 마운트 솔리 광산의 합작 파트너로, 포스코에는 2006년부터 안정적으로 양질의 석탄을 공급해 오고 있다.

포스코와 안콜은 1대1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매년 5만달러씩 출연해 10만달러를 조성 후, 양국에 1년씩 번갈아 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12일부터 13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40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차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포스코

원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은 지역 장학사업, 안전 및 환경 개선활동, 협력사 교육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에 사용돼 단순 기부활동과 차별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내년 첫해 사업으로 호주 원주민 후원단체인 클론타프 재단과 함께 원주민 취업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단이 지원하는

학생중 일부를 선발해 1년 동안 채광, 광물이송 등 광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 안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 한국에서 운영될 프로그램은 향후 양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다.

최정우 회장은 "원료공급사와 공동으로 GEM 매칭펀드를 통해 호주 지역 사회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공생까지 창출에 기여하고 안콜 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향후 해외 타 원료공급사도 매칭펀드 프로그램을 확대해 원료-철강 비즈니스 밸류체인내 이해관계자와 공생의 가치창출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최정우 회장은 12일부터 13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40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차회의에 한국 측 위원장으로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포스코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세계경제포럼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소개했으며,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는 한-호주 수소 에너지 비즈니스 협력에 대한 주제발표로 청중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의 민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1979년에 설립된 단체로 연 1회 양국이 교차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 측 위원장은 2002년부터 포스코 회장이 맡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1년 '취업자 수 42만명'서 계속

## 실업자수 3년 만에 최저

연령계층별로는 60대 이상(41만 7000명), 50대(10만 8000명), 20대(8만 7000명) 등에서 늘어난 반면 40대(-14만 6천명)와 30대(-5만명)는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44.3%로 1.4%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86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줄어들며 8월(-27만 5000명)과 9월(-14만명)에 이어 석달 연속 감소했다. 실업자수가 석달 연속 감소한 것은 2016년 5~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10월 기준으로 2013년(2.7%) 이후 최저다. 청년 실업률은 7.2%로 1.2%포인트 떨어졌다. 2012년 10월 6.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거칠것 없는 현대백면세점, 두타매장 인수... '규모의 경제'

두산과 매장 임대 계약 체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연 100억  
향후 특허신청 결과 따라 변동



현대백화점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두산과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영역확장에 나섰다. 점포 확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산 면세 사업 부문 중 부동산과 유형자산의 일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통해 두산의 476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143억원 규모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기로 했다.

두산 면세사업 인수 목적에 대해서는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장 취득 및 운영'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 참여·취득해 동대문에서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취득예정일은 내년 2월 28일이며 계약 조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연간 100억원을 지불한다. 다만 이번 취득은 조건부 사항으로 향후 시내면세점 운영 특허신청 결과에 따라 취득 여부

가 변동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산은 두타면세점 매장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에 참여할 예정인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임대한다. 두 회사는 협약에 따라 향후 신규 특허 심사 일정에 맞춰 협약 이행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면세점 빅3인 롯데·신라·신세계가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에 불참의사를 내비치면서 사실상 사업권은 확정된 상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해 11월 무역센터점에 시내면세점 1호점을 열고 영업중이다. 매출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영업손실 또한 누적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6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했다. 3분기 면세부문 영업손실은 1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80.0% 늘었다. 그럼에도 두타면세점 자리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 실현'에 있다. 면세점 규모가 작으면 유명 해외 브랜드를 유치할 수 없지만, 규모가 클수록 브랜드 유치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브랜드 파워'가 있는 면세점에 고객이 몰리는 것이다. 브랜드 유치 뿐 아니라 규모가 크

면 대량의 상품을 주문해 저렴한 가격에 납품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몸집을 키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매 협상력을 늘려야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두타면세점 자리로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면 기존보다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고 교섭력도 끌어올릴 수 있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은 지난달 29일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의 어려움을 이유로 두타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두타면세점은 3년간 총 6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 477억원, 2017년 13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2018년에야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올해 다시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기로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직장인 절반 "주 52시간제 이후 야근 줄었다" "주 52시간제 1년 더 연기... 탄력근로제 검토"

## 잡코리아 기업 설문조사

"야근 늘었다" 응답 7.7%에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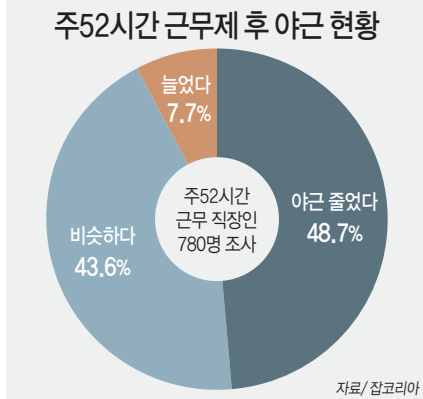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야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잡코리아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780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야근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요즘 야근을 자주 합니까?'라는 질문에 '가끔 한다(42.9%)'거나 '거의 안 한다(41.9%)'는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야근을 자주 한다'는 응답자는 15.2%에 그쳤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야근 빈도는 전과 비교해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야근이 줄었다'는 응답자가 48.7%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전과 비슷하다(43.6%)'는 응답자가 많았고, '야근이 늘었다'는 응답자는 7.7%로 소수에 그쳤다.



자료/잡코리아

야근을 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 다하지 못했다(53.6%)'나 '갑자기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업무 때문에(50.1%)' 야근을 한다는 직장인이 각각 과반수 이상의 응답률(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본연의 업무보다 보고/관리하는 업무가 많아서(16.2%) ▲업무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해서(해외무역 등\_15.1%) ▲퇴근시간이 임박했을 때 업무 지시를 받아서(14.5%)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서(13.6%) 순으로 조사됐다.

/한용수 기자 hys@

## 중소 주 52시간제 입법보안 입장 발표

보안 없이 근로시간 단축시 큰 충격 현실 감안한 제도보안 반드시 선행

범중소기업계가 5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가로 번 시간 동안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관련 제도를 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입장을 국회에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단체는 입장문에서 "주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돼 있어 특단의 보안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중소기업들도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52시간제 입법 보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회장(왼쪽 2번째) 등 단체장들이 회견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도보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시행시기 1년 유예 ▲탄력근로제 요건과 절차 대폭 완화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주52시간제의 근본해법은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라면서 "불규칙적인 주문과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노사합의시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적

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주' 단위로 하고 있다보니 '연·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일본에 비해 뻣뻣하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도 주52시간제를 꼭 지킬테니 1년만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라며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들어봐도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기엔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담양군 공고 제 2019 - 112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담양군 고서면 보춘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4

담양군

1. 공람기간 : 2019. 11. 14 ~ 2019. 11. 27.(14일간)  
2. 공람장소 : 담양군청 투자유치과, 고서면사무소  
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사업명	위치	면적(㎡)	비고
담양 고서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서면 보춘리 일원	885,731	

4.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사유 :  
○ 담양 고서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보상이익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방지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함.  
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 공람장소 별도 비치  
※ 권입토지조서와 도면이 불일치 할 경우 도면이 우선시 됨  
7. 기타사항 :  
○ 관련도서는 담양군청 투자유치과, 고서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들에게 보여드리오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투자유치과(☎380-3136, 3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에서 선호하는 근무지 1위 강남 일대... 2위 시청·광화문

### 사람인 성인남녀 설문조사

지역 선호 이유로 교통편 꼽아  
직장 선택 시 86% 지역에 영향

성인남녀가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는 강남 일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사람이인 성인남녀 2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내 선호 근무지에 대한 응답자(복수응답) 41.6%가 '강남 일대'를 선택했다.

이어 '시청/광화문'(25.1%), '여의도'(24.6%), '구로/가산 디지털단

지'(21.5%), '잠실/송파'(21.1%), '홍대/신촌'(16.8%), '상암 DMC'(12.3%) 등의 순으로 선호했다.

해당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58.6%(복수응답)가 '집에서 교통편이 가장 좋기 때문'을 꼽았다. 이어서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서'(33.5%), '중심지라서'(26.4%),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24.7%), '비즈니스 미팅 등이 동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서'(12.7%) 등을 들었다.

명당으로 생각하는 근무지 역시 대다수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하

철역 인근'(80.2%, 복수응답)을 선택해 편리한 출퇴근을 중요하게 여기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36.1%), '도로 환경 등 차량이동이 용이한 곳'(31.4%), '인근에 맛집이 많은 곳'(12.8%), '녹지공간이 잘 구성된 공원 인근'(10%), '전망이 좋은 곳'(5.4%) 등의 순이었다.

상당수의 성인남녀(86.7%)는 직장 선택 시 근무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이 입사 또는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복 합격 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도'(57.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최종 결정을 좌우할 정도'도 30.7%나 됐다. 반면,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11.4%에 그쳤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중 직장인(1,272명)의 절반 정도(53.2%)가 현재 선호하는 근무지역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응답했다.

또 현재 선호 근무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직장인(595명)의 경우, 대다수인 83.4%가 추후 선호 근무지역으로 이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IT 기업과 디지털 고도화... 플랫폼 동남아 진출 가속도

## 디지털금융 시대

### JB금융그룹

지주사-은행 분리, 디지털역량 강화  
오픈뱅킹 도입 앞두고 인력 재편도  
손자회사 코어뱅크 시스템 자체개발  
캄보디아 최적화 금융서비스 제공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JB금융그룹

JB금융그룹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김기홍 회장의 '내실 위주 경영전략'과 함께 한다. 지주사와 은행을 분리해 그에 맞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해외사업 영업을 확대한다. 이러한 전략이 규모의 열위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란 판단에서다.

### ◆JB금융, IT기업과 협업...투자 효율성 극대화

JB금융지주는 전문 정보기술(IT)기업과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금융회사가 그룹내 핀테크 랩을 개소해 금융 서비스를 개발·제공 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다.

앞서 JB금융은 카카오�뱅크 출범시 코어뱅크시스템을 판매해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 필요한 IT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우수한 IT기업과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코어뱅크 서비스는 은행의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예금, 적금, 외환, 대출, 카드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난 7월에는 IT업체 더존비즈온과 사업제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JB금융은 해당 회사의 플랫폼 '위하고(WEHAGO)'에서 Banking과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위하고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각종 대금 지급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펌뱅크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북은행은 31일부터 뉴스마트뱅킹을 통해 오픈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은행

JB금융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지점을 마련해 은행의 Banking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주요 금융업무와 맞춤형 JB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했다. 웹기반 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통해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 ◆광주·전북은행 인력재편...비대면 채널 고도화

JB금융은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에 앞서 담당 직원을 각 은행으로 이동시키는 인력재편도 완료했다. 은행별로 디지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빠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디지털화를 위해 비대면 채널 고도화, 자동화 로봇 기능(RPA),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P2P기업과의 제휴사업을 중심으로 스마트뱅킹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연장, 마이너스 신용대출 한도 증액, 대출 결제계좌 변경, 이자납입일 변경 등의 번거로운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북은행은 해외송금 제휴업무를 중심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자동 송금서비스는 영업점을 방문해 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1회만 등록하면, 이후에는 은행 방문 없이 송금

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밖에도 전북은행은 오픈뱅킹서비스 도입에 따라 뉴스마트뱅킹에서 다른 은행 계좌 조회 출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 앱을 통해 전북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계좌정보를 분석해 지출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 ◆동남아시아 지역 공략 가속화...수익성 UP

디지털 금융수요가 커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공략도 가속화한다.

JB금융은 13일 손자회사인 프놈펜 상업은행이 자체시스템을 개발해 차세대 코어뱅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놈펜 상업은행은 여신업무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할 수 있다. 무역 금융 등 외국환 업무나 고객 정보도 전산화된다. 캄보디아 소액대출 시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JB금융은 미얀마, 베트남 등으로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난 12일 경남 창원시 대산면에서 진행된 '농협은행 최우수고객과 함께하는 농촌일손돕기 및 농촌체험'에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임직원 및 최우수고객이 단감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농촌봉사 '구슬땀'

### 최우수 고객과 일손돕기 진행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에서 농협은행 최우수고객(VVIP)과 함께 단감 수확 등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감 수확에 이어 삼색떡 만들기, 미니정원 꾸미기 등의 농촌 체험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최우수고객과 함께하는 농촌일손돕기'

는 전국 농협은행 15개 권역에서 최우수고객 500명과 범농협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 1000명이 참여했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일손돕기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100% 순수 국내자본으로 설립된 농협금융은 앞으로도 고객과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하나금융, 준법·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 금융권 첫 ISO 19600·37001 획득

하나금융지주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준법 및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 19600과 ISO 37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3일 서울 명동 소재 본점에서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준법경영시스템(ISO19600)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서를 공식 수여받았다.

ISO 196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지난 2014년 12월에 제정해 시행 중인 준법경영시스템(Compliance Management Systems)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이다.

ISO 37001 역시 국제표준화기구가



강태희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인(왼쪽)이 황은주 한국경영인증원(KMR)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지난 2016년 10월 제정하고, 국내에는 2017년 11월부터 KS(Korean Industrial Standard)로 도입돼 시행 중인 부

패방지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관련 국제표준 요구 사항 및 사용 지침이다.

황은주 한국경영인증원(KMR) 원장은 "하나금융지주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ISO 19600과 ISO 37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 중 유일하게 글로벌 수준의 준법·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입증했다"고 인증의 의미를 설명했다.

강태희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은 "하나금융지주는 인증 획득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해 준법 및 부패방지 경영 분야에서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민영기자 hong93@

## 우리카드 2억달러 규모 소셜 해외 ABS 발행

### 국내 민간기업 최초 성공

우리카드가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미화 2억달러(약 2340억원) 규모의 소셜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외 ABS에는 HSBC은행이 단독으로 투자했다. 기초자산은 신용카드 매출채권이며, 만기는 3년이다.

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저소득층과 중

소기업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 목적을 두고 발행하는 소셜 본드의 용도에 맞게,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카드 결제대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ABS 발행이 사회적 채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금조달 기반 다변화와 더불어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 SH수협銀 키즈맘 위한 '쑥쑥 멤버십 카드'

Sh수협은행이 13일 영·유아를 둔 부모를 위해 '쑥쑥 멤버십 카드'를 출시했다.

쑥쑥 멤버십카드는 키즈맘이 선호하는 7개 업종(마트, 외식, 쇼핑, 여가, 교육, 의료, 주유) 중 선택한 1개 업종에 대해 7% 청구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로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할인해 준다. 가입은 만 19세 이상 개인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협은행은 쑥쑥 멤버십카드 출시 기념으로 가입고객 대상 '5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대상 가맹점(키즈카페, 마트, 카페, 외식업종)에서 결제시 50% 청구 할인 ▲수협은행 VIP



연계 사이트에서 워터파크, 놀이공원, 문화, 공연 티켓 구매시 5% 청구할인 ▲수협은행 캐릭터 '라온이' 인형 증정 ▲연회비 100% 캐시백 등이다.

/나유리기자

### 기업은행

## 'IBK창공 마포 3기' 21일 데모데이 개최

IBK기업은행은 오는 21일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의 '마포3기' 기업이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올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IBK창공 마포 3기' 액셀러레이팅의 최종 마무리 행사다. 육성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 홍보, 네트워킹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에는 벤처캐피탈리스트(VC), 엑셀러레이터(AC)를 비롯해 유관기관,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나유리 기자



SK그룹 사회적 가치 창출

# 그룹 ICT전문가 총집결... 시너지 극대화 '결실'

## SKT TEB 컨퍼런스

우수활동·연구 과제 성과 발표  
멤버 100명에 물적·인적 지원  
"5G 시대 경쟁력 위해 협력·공유"

SK텔레콤은 13일 인천 중구 소재 SK무의연수원에서 SK그룹 관계사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뉴 ICT 분야의 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SKT TEB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EB(테크 엑스퍼트 보드)'는 SK텔레콤의 사내 ICT 분야 우수 전문가 집단이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TEB 멤버 100여명에게 직무 전문 역량 개발, 학습 커뮤니티 등 물



SKT TEB 컨퍼런스

적·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SKT TEB 컨퍼런스'는 이번 행사에 TEB 멤버 외에도 SK그룹 내 IC

T 전문가 100여 명을 대거 초대해 뉴 ICT 기술 공유 및 국내외 ICT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TEB 구성원들은 울

해 우수 활동을 공유하고 연구 과제 성과를 발표한다. 데이터 기반 법률 서비스, 미디어 개인화 추천 등 뉴 ICT 기술을 SK텔레콤의 상품과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ICT 업계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갖는다. 주요 연사로 웰컴 코리아의 박성은 박사가 '5G 에코시스템과 사용자 경험'을 주제로 발표하고,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선우명호 교수가 자율주행차 및 미래 교통산업에 대해 발표한다.

또 최근 ICT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 김준원 대표와 자율주행 드론 스타트업 니어스랩의 최재혁 대표가 각각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와 자율주행 드론 설

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TEB 멤버들은 사내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줬다. 한 해 동안 국내외 컨퍼런스에서 32건의 발표 및 기술 전시를 하고 5G 상품·서비스 관련 39건의 특허를 등록하는 한편, IT 분야 세계 최대 학술단체인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를 비롯해 국내외 우수 저널에 통신 기술 관련 기고를 게재했다.

SK텔레콤 문연희 기업문화센터장은 "5G 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과 공유를 통한 기술 생태계 활성화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SK그룹 ICT 전문가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협력사·사회적 기업 66개사 한자리에... '좋은 일자리' 마련

##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

참가사 사전면접예약 시스템 운영  
해당 기업 문화·세부정보 소개  
AI 활용 자기소개서 컨설팅 마련

SK가 우수협력사에는 고급 인력을,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SK는 오는 19일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관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SK 주요 관계



지난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8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구직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가 추천하는 우수 협력사와 사회적 기업 66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직종과

직무 인력을 채용한다. 참가사들은 사전면접예약 시스템

을 운영해 참가자 면접 기회를 늘렸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문화와 세부 정보도 소개한다.

행사장에서는 기업별 인사 담당자가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면접까지 진행한다. 구직자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전략 세미나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도 마련했다.

사회적 기업 홍보 부스도 준비했다. 우수 인재들이 사회적 기업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행사는 29일 울산으로도 이어진다.

문수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울산지역 SK 관계사 24개가 참여한다. 채용상담 부스와 취업 특강, 협력사 CEO 간담회 등도 이어진다.

한편 SK는 2005년 '행복동반자 경영' 선언 이후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2006년부터는 협력사 역량강화 교육과정인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2009년에는 협력사들이 사업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를 발족했으며, 지난해에는 1~3차 협력사간 현금결제 지원펀드도 신설했다. /김재용 기자 juk@

## HDR10+ 스트리밍 업체 왓차에도 적용

(차세대 영상 표준)

삼성전자 장면에 밝기·명암비 최적화

삼성전자는 왓차에서도 콘텐츠에 HDR10+를 적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HDR10+ 차세대 영상 표준이다. 각 장면마다 밝기와 명암비를 최적화해 영상의 입체감을 높여 주고 정확한 색 표현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완벽한 화질 경험을 제공한다.



왓차도 HDR10+ 기술을 도입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HDR10+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연합을 결성해 10월 말까지 90개 이상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 LG전자, 씽큐 서비스 국가 150개로 확대

LG전자가 가전 관리 앱 '씽큐' 서비스 국가를 150여개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씽큐는 LG전자의 가전관리 앱이다. 지난 9월 업계 최초로 구글 어시스턴트 기반 음성인식을 추가했으며, 지난달부

터는 스토어에서 소모품과 액세서리 주문까지 시작했다. 가전을 등록하면 스스로 필터 교체시점을 알려주는 기능도 탑재했다. 연동되는 가전제품도 지난해 20종에서 올 연말까지 24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 알뜰폰에 '월 150GB' 대용량 LTE 요금제 나온다

LGU+ 이번 주부터 요금제 출시  
월 정액 6만9000원, 일 5GB 제공

월 데이터 150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롱텀에볼루션(LTE) 알뜰폰 요금제가 나온다.

LG유플러스는 통신업계 최초로 하루 5GB씩 매달 150GB의 대용량 LTE 데이터를 제공하는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이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전산 개발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LTE망을 임대하고 있는 20여개 알뜰폰 중 요금제 출시를 원하는 사업자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대용량 LTE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우선 6개 알뜰폰 사업자가 이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알뜰폰 요금제는 LG유플러스의 LTE 핵심 요금제 중 하나인 '추가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69'를



통신 판매점에서 고객이 알뜰폰 가입 상담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

바탕으로 구성했다. 이 요금제는 월정액 6만9000원에 일 5GB씩 월 150GB(30일 기준)의 LTE 데이터를 제공하고 소진 시에도 5메가비피에스(Mbps)속도로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 역시 무제한이다.

통상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로부터 회선 사용료를 40%~50%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 제공받고, 소비자에게 20~30%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면 추가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69와 동일한 혜택을 4만원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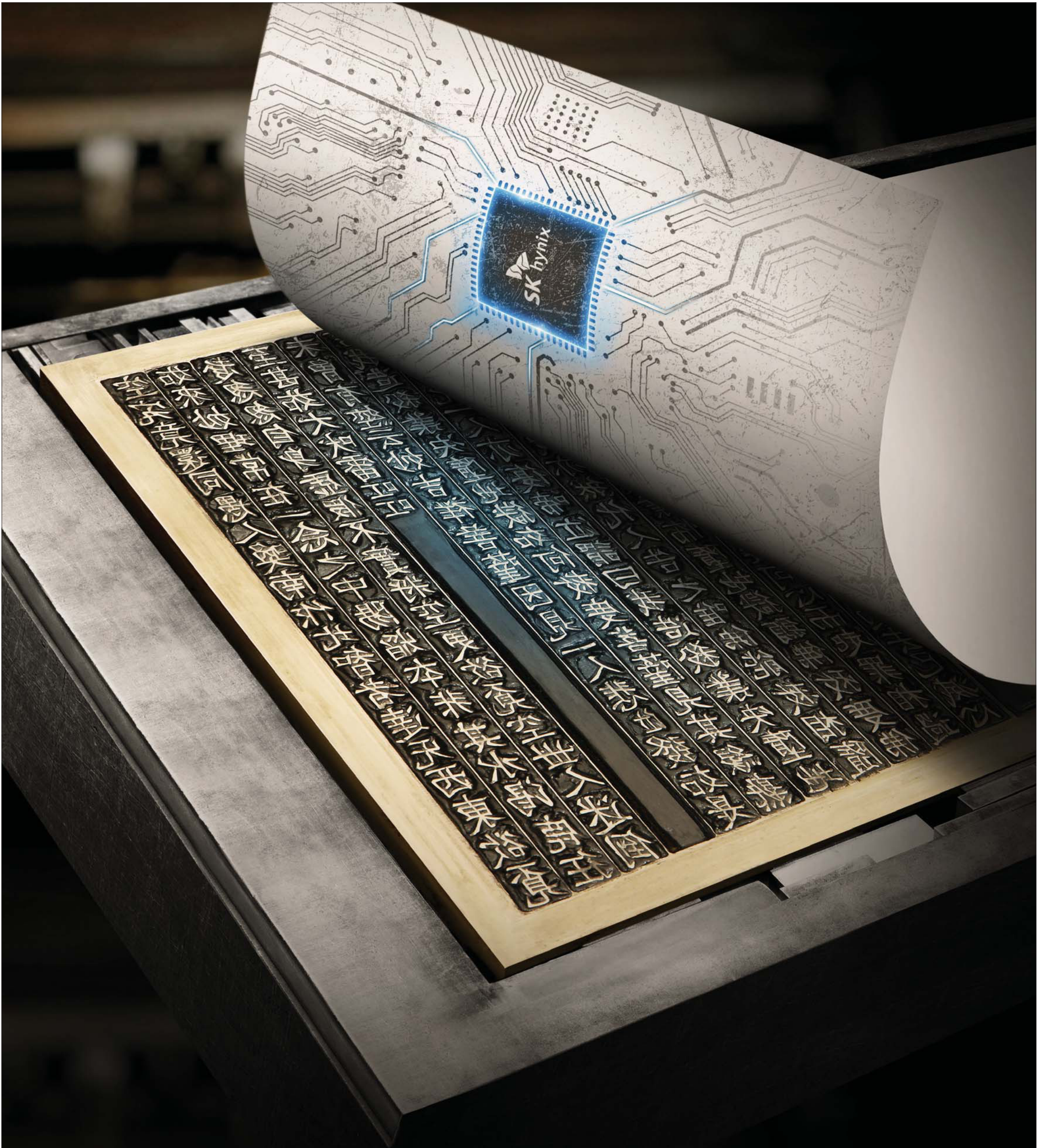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정액형 선불 요금제도 이달 중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 요금제는 '정액선불 11GB+', '정액선불 11GB(국제)+' 2종이다.

하루 2GB씩 60GB(30일 기준)와 추가 제공 데이터 11GB를 매월 제공한다. 데이터 소진 시에도 3Mbps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전략 요금상품의 알뜰폰 출시 지원이 MVNO 사업자들의 수익 개선과 가입자 확보 및 유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LTE33, 추가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44 등 고객 수요가 많은 기본료 3만~4만원대 저가 요금상품을 알뜰폰을 통해 선보였다. /김나인 기자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금속활자의 고장 청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첨단반도체를 만듭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현대차그룹 중국사업총괄 이광국 사장(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중국 국가정보센터 쉬창밍 부주임 등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 현대차, 中과 산업발전 도모

### 韓·中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

#### 충돌방지 등 자율주행 기술 소개 업체간 상호 협력 중요성 강조

현대차그룹이 한국과 중국 자동차 산업 발전의 가교 역할을 7년째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12일 중국 베이징 상그릴라 호텔에서 중국 국가정보센터(SIC)와 '제7회 한·중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중 자동차 산업 관계자간 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그룹 중국사업총괄 이광국 사장, 중국 국가정보센터 쉬창밍 부주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준기 실장, 중국 전기차 100인회 장용웨이 비서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우웨이 처장,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이재관 본부장 등 한·중 자동차 산업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자율주행 시대의 한·중 자동차 산업 발전의 길'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 현황과 향후 산업화 전망 ▲중국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성과 산업간 융합 등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차그룹은 '보편적 안전'과 '선택적 편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개발한 전방 충돌방지 보조·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을 소개하며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에서 분류한 레벨 2 단계 수준의 현재 상용화 단계를 넘어 완전한 수준의 레벨 5 단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율주행 기술을 자동차 업체와 ICT 업체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업체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스마트 시티 파일럿 프로젝트를 비롯해 고도화된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바이두 등 여러 중국 업체와 자율주행차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 정부의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소개하면서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 자율주행(레벨 4) 상용화 등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의 자율주행차 육성 정책을 소개했으며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은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동향 및 산업화 전망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 연구기관인 국가정보센터는 중국 소비자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분석을 소개했으며 중국전기차 100인회는 중국 업체의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화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 ICT 업체 텐센트, 모빌리티 선두주자 디디추싱이 각 회사의 관점에서의 중국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성과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다. /양성운 기자

## 에어부산 선전·가오슝 등 인천發 신규노선 취항

### 195석 에어버스 A321-200 투입

에어부산은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선전·가오슝·세부 등 3개 신규 노선에 취항했다고 밝혔다. 전날 취항한 인천-닝보 노선을 포함하면 인천발 4개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에어부산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취항 기념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나섰다. 이번 인천-선전 노선은 주 6회, 인천-세부 노선은 매일 한 번씩 주 7회, 인천-가오슝 노선은 주 4회 운항한다.

인천-선전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11시 30분 출발하고 돌아올 때는 현지 공항에서 다음날 오전 3시 35분 출발하며 비행시간은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인천-가오슝 노선은 인천국제



에어부산의 기종 HL8099 여객기

공항에서 오전 11시 25분에 출발해 돌아올 때는 오후 2시 15분 출발한다. 비행시간은 약 2시간 55분이 소요된다.

인천-세부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11시 25분에 출발하며 현지 공항에서는 오후 4시 40분 출발해 비행시간은 약 4시간 35분이 소요된다. 이번 신규 취항한 3곳의 노선 모두 195석 규모의 에어버스 A321-200 항공기가 투입된다. /김수지 기자

# 역동적 SUV, 진화한 디자인 공개

〈컨셉트카〉

### 현대자동차

'2019 LA오토쇼'서 최초 선배  
'파라메트릭 에어 서터 그릴' 적용

현대자동차가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더 뉴 그랜저'를 한 단계 진화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현대차는 '2019 LA오토쇼'를 앞두고 혁신적 디자인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컨셉트카 티저 이미지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SUV 컨셉트카는 현대차의 차세대 디자인 철학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보여주는 일곱번째 컨셉트카로 이달 말 열리는 '2019 LA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동되는 SUV 컨셉트카는 기술혁신을 통해 구현된 디자인으로 제품 경험에 감성적 가치를 더하고자 하는 현대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 안에서 파라메트릭 판타지와 초월적 연결성라는 두 가



현대자동차가 LA오토쇼에서 공개할 SUV 컨셉트카 티저 이미지.

지 테마를 디자인적으로 구현해 냈다.

차량의 모든 표면은 서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자아내며 끊임없이 연결된 면과 선들이 만들어 내는 감각적 긴장감은 컨셉트카가 가진 역동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지난해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컨셉트카 '르 필 루즈'와 최근 공개된 '더 뉴 그랜저'에 적용된 그릴과 헤드램프가 일체형으로 연결된 히든 시그니처 램프는 이번 컨셉트카에서

그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느끼게 한다.

SUV 컨셉트에 적용된 '파라메트릭 에어 서터 그릴'은 정지 상태에서는 그릴이 닫혀 있다가,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서터가 움직이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며, 공기역학을 고려해 연비효율을 높여주며 '기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노렸다.

한편 SUV 컨셉트카의 상세 제원은 이달 말 미국 LA 콘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2019 LA 오토쇼'에서 공개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돌발상황 빠른 감지... 현대모비스, 긴급자동제동 최초 개발

초단거리 레이더 센서 활용  
초음파·카메라 조합으로 성능 ↑

현대모비스가 초단거리 레이더 센서(USRR·Ultra Short Range Radar)를 활용한 후방긴급자동제동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 초음파 센서를 적용했을 때보다 응답 속도가 빠르고 감지 거리도 길어 돌발적 상황에서 후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후방긴급자동제동(R-AEB)은 차량 후진 경로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 등을 센서로 인식해,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를 울렸음에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차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기술이다. 후방긴급자동제동 장치에는 지금까지 주로 초음파와 센서를 활용해 왔으며 초음파와 카메라를 조합해 성능을 높이는 방식도 적용됐다. 여기에 레이더 센서를 적용해 개발한 것은 현대모비스가 처음이다.

레이더는 자율주행기술에 주로 적용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주차 보



현대모비스가 서산주행시험장에서 세계 최초로 초단거리 레이더를 활용한 후방긴급자동제동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조기술에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에서 출발했다. 이를 통해 바람이나 소음의 영향을 받고(초음파), 어두운 곳에서는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카메라) 기존 주차 보조 센서들의 단점을 한번에 해결해 성능을 개선하고, 여러 센서들을 조합했을 때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했다.

현대모비스는 레이더를 주차 보조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 초단거리 레이더(USRR)를 개발했다. 기존 레이더는 단거리 레이더(SRR)라 하더라도 초근거리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기술을 후방긴급제동 기술에 적용하면서 감지 거리, 응답성, 악조건 대응력, 차량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디자인 측면에서도 기존 초음파 센서는 범퍼에 여러 개의 구멍이 필요했지만 초단거리 레이더는 범퍼안쪽에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퍼 디자인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 개발 과정에서 센서부터 제어 알고리즘에 이르는 기술들을 독자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국내외에 관련 특허도 출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의 조성우 APS설계실장은 "실차 평가 과정에서 초단거리 레이더를 장착한 후방긴급자동제동의 성능 신뢰성에 대한 검증은 마쳤다"며 "앞으로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과 협의해 양산 적용을 적극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사례처럼 제동, 조향, 램프 등 기존 핵심 기술 경쟁력에 센서와 통합 제어 기술을 융합해 다양한 제품군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양성운 기자

## SK, 친환경 '지크 제로' 5종... 연비 3% ↑

윤활유 시장 선점 나서  
독자개발 이온액체 활용

SK루브리컨츠는 친환경적인 성능을 대폭 강화한 윤활유 제품을 출시하고 친환경 제품 위주로 재편되는 윤활유 시장의 선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SK루브리컨츠는 지난달 차세대 친환경 윤활유 신제품인 'SK 지크 제로' 5종을 출시했다.

'SK 지크 제로'는 하이브리드·기술

린 등 최신 승용차 규격에 적합하도록 신규 개발했다. 'SK 지크 제로(ZIC ZERO)' 5종은 SK루브리컨츠가 독자 개발한 특허 물질인 이온액체를 활용한 '제로-테크' 기술이 적용된 초저점도 윤활유로 기존 지크 제품 대비 연비가 3% 이상 향상됐다.

SK루브리컨츠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온액체는 엔진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엔진 보호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SK루브리컨츠가 출시한 차세대 친환경 윤활유 신제품 SK '지크 제로' /SK루브리컨츠



# ‘신한알파’ 해외주식 쉽게 거래... 모바일로 주식 선물

## 증권가의 디지털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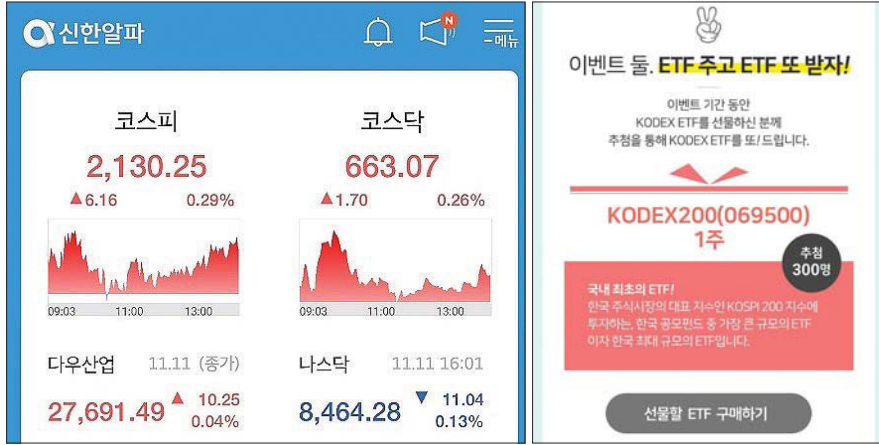
###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간편투자 서비스’로 가상 해외여행 하듯 종목선택 6천원 부터 소수점 구매 가능

신한금융투자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쉽다’, ‘간편하다’로 압축된다. 신한금융투자가 노린 고객층은 주식 입문자 등 초보자였다.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을 활용해 주식 입문자를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따뜻한 금융’이란 회사 가치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인 디지털과 금융의 융복합을 통해 입문자도 함께할 수 있는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 ◆ SNS 처럼 쉬운 ‘해외주식 간편 투자 서비스’

온라인·모바일로 간편하게 해외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그룹 앱 ‘신한알파’(왼쪽)와 스톡기프트 모바일 화면 캡처.

가 출시한 ‘해외주식 간편투자서비스’를 통해서다. 주식 입문자나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 마치 게임 캐릭터를 연상케 한다. 신한금융투자의 글로벌투자 캐릭터로 가상 해외여행을 하며 종목 선택을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글로벌 회사의 서비스와 제품 등 투자 정보를 획득한다. 해외주식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초보자들의 통념을 깬 획기적인 서비스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주식거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신한알파나 신한금융그룹 앱의 ‘신한플러스’ 메뉴에서 ‘글로벌 투자 여행’에 접속하면 된다. 매수할 때 자동 환전 시스템이 적용돼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었다. 주문은 최소 6000원 이상부터 0.01주 단위로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현재 미국에 상장된 86개 종목을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다. 특이점은 ‘소수점 주식구매’가 지원된

다는 점이다. ‘소수점 주식구매’는 1주 단위로 거래되는 기존 방식과 달리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방식이다. 예를 들어 약 210만원 수준의 아마존 주식도 최소 0.01주(약 2만1000원) 단위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거래방식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증권업계 최초로 신한금융투자의 ‘소수점 주식구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덕분에 신한금융투자 고객은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됐다.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매매를 증개할 때 구분예탁과 구분계좌 의무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우량주 소수점 투자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다른 증권사 역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 때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을 제공하는 카사코리아, 개인투자자 간 ‘주식 대차 플랫폼’을 제공하는 디렉셔널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식도 기프트콘으로 ‘스톡기프트’ 이제 주식도 커피나 음료수 처럼 간편하게 모바일로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투자의 ‘스톡기프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2017년 3월 특허 출원한 스톡기프트는 계좌번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이용이 간편하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입력해 간편하게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물할 수 있게 됐다. 계좌가 있다면 신한금융투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신한알파에 접속해 받으면 되고, 없다면 신한알파나 ‘신한플러스’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스톡기프트를 활용해 직접 자녀에게 선물해 봤다는 증권사 관계자는 “용돈보다 훨씬 좋은 선물”이라며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거부감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각광... 성수기 실적개선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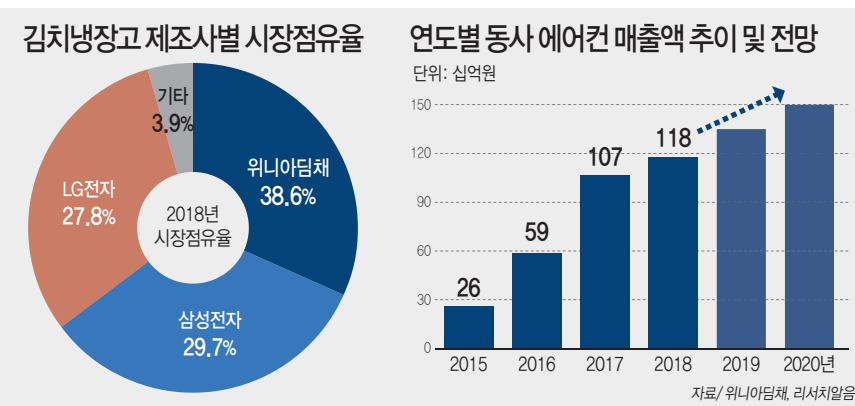
## 株라쿨라의 주목

### 위니아딤체

젊은세대 중심 ‘스탠드형’ 인기 태국에 공장 설립, 본격 가동으로 에어컨·세탁기 등 수익향상 기대

“최근 김치냉장고가 뚜껑형에서 스탠드형으로 바뀌며 과일, 채소, 쌀 등 다양한 식자재를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재도약하고 있다.”

매년 11~12월은 김치냉장고 시장의 성수기로 평가된다. 국내 김치냉장고 시장은 지난 2015년 1조3000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정체된 상황이다. 하지만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을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13일 “김치냉장고 시장이 재도약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치냉장고 시장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교체주기 도래, 스탠드형으로의 전환, 젊은층의 수요 증가 등이 꼽히고 있다.



위니아딤체는 1999년 설립된 가전 제품 전문 기업으로 2016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대우그룹에 속해 ‘대우위니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 6월 지금과 같은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다른 계열 상장사들이 모두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차별화를 위한 조치가 판단된다. 가전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룹의 의지다. 김치냉장고뿐 아니라 전기밥솥,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 중이다.

최 수석연구원은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가 인기를 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젊은 세대와 1인 가구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뚜껑형에 비해 소비자 판매가 기준 3~4배 가량 비싸 더 이상 정체 시장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니아딤체는 상호 개명에서 알 수 있듯 김치냉장고 사업에 잔뜩 힘을 주고 있다. 생활가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어컨 시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5%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위니아딤체를 비롯해 캐리어, 대우, 센추리 등 다른 중견 업체들이 나머지 15%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터라 수익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최 수석연구원은 분석했다. 위니아딤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태국에 공장을 설립했다. 최 수석연구원은 “매출원가와 관공비 절감을 통해 승부를 보려는 계산이다. 현재 공장 준공과 설비도입까지 완료된 상황이며 올 연말부터는 본격 양산 계획을 갖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전까지 김치냉장고를 제외한 생활가전 대부분이 계열사 ‘대우플러스’에서 외주 생산됐는데 올 연말 에어컨 생산을 시작으로 태국 공장 가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반기 전망은 밝다. 계절적 비수기로 그동안 적자를 봤으나 전체적인 사업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하며 적자 규모를 지난해 313억원에서 175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이젠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본격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송태화 기자

## 증권 다이제스트

### 키움증권 ELS 청약 1만원 이벤트

키움증권은 ELS(추가연계증권) 청약 고객에게 현금 1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다음달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공모 ELS를 매수하고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1월 50명, 12월 50명에게 현금 1만원을 선물한다. 현재 키움증권에서 판매중인 ELS는 2종이 있다. 키움제1160회 ELS는 만기 3년으로 예상 수익률은 세전 연 9.5%다. 기초자산은 유로스톡스50지수, SK하이닉스 보통주, 기아차 보통주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9.5%의 수익률로 상환된다. /송태화 기자



### 한화자산운용 아시아고배당펀드 100억 돌파

한화자산운용은 ‘한화밸류파트너스 아시아고배당펀드’가 출시 10일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설정액은 103억이다. ‘한화밸류파트너스 아시아고배당펀드’는 중국, 홍콩, 한국 등 범아시아 국가들 중 우수한 현금흐름과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하는 고배당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 아시아 가치투자 전문운용사인 홍콩 밸류파트너스(Value Partners)가 위탁 운용하는 펀드이다. 해당 펀드는 밸류파트너스가 홍콩에서 운용중인 ‘밸류파트너스고배당펀드(Value Partners High Dividend Stocks)’와 동일한 운용 전략을 추구한다. /손염기 기자

## 윤수영 키움증권 부사장 사퇴 배경은

### ‘인터넷銀 실패 책임’ 해석

윤수영 키움증권 부사장(사진)이 사표를 던졌다. 윤 부사장은 최근 키움증권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된 지 8개월 만이다. 증권가는 윤 부사장의 사퇴를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다우이금융그룹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실패하며 그에 대한 책임론이 거센 상황이었기 때문. 당시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을

에도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아 탈락했다. 윤 부사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위한 키움증권의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왔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신사업 진출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키움증권 관계자는 “윤 부사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사장은 증권가에서 빠가 굵은 인사다. 1987년 쌍용증권(현 신한금융



투자)에 입사하며 증권계에 발을 들인 후 프라임투자자문, C I 투자자문을 거쳐 2000년 키움증권에 입사했다. 입사 20주년을 앞두고 키움을 떠나게 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 부사장에 대해 “원칙적인 성격으로 열정도 많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키움증권이 짜게 될 새로운 판 역시 관심사다. 윤 부사장이 떠나게 되면 사 내이사는 김익래 다우이금융그룹 회장과

이현 키움증권 사장 둘만 남게 된다. 숙원사업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실패하며 추후 사업과 실적에 대해 위기감이 조성된 상황이다. 인터넷 증권사로 출범했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온라인 리테일 부문에서 14년째 점유율 1위를 지킬 정도로 강자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사업 다각화 측면에선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올해 예상 밸류에이션은 다른 증권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수익 다각화와 투자은행(IB) 비중 확대 등 사업 모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 서민 두 번 울리는 불법사채... “솜방망이 처벌 근절돼야”

## 불법사금융 토론회

피해신고 증가...작년 3000건 육박  
형사사건도 집행유예·벌금형 그쳐

규제 빈틈 많고 영업억지력도 미흡  
대부업·불법사금융 엄격히 구분해  
‘대부업자’ 공통 명칭 개선하고 규제

최근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  
어나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  
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  
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서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이 제도권 금융 내에서 마지막으로 문  
을 두드리게 되는 곳인 대부회사마저  
신규대출을 축소하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  
이라며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  
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  
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박덕배 국민대학교 교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24.8%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법정 최  
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  
의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  
다”며 “합법적 대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  
의 불법사채를 막기 위한 실질적 규제  
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나 학  
계에서 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  
해 불법사채를 근절하는 규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는 늘어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결제업이 2015년과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추정했을 때,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불법사채시장 이용자  
는 약 30만~40만 명, 이용총액은 약 10  
조~2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신고도 급격히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불법사채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969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배 국민대학교 교수는 “불법사  
채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 노출 등의 두  
려움으로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차주의  
속성을 고려할 경우 실제적으로 불법사  
채 이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  
다”며 “이에 따른 실제 피해 또한 추정  
치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사채업을 운영하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  
한 형사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또는 벌  
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지 않  
다”며 “등록 대부업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영업을 하다가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불법사  
채에 대한 영업 억지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사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엄격히 구분해

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교수는 “2000년대 들어 등록 대부  
업이 급성장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이  
소홀했던 민간 서민금융을 대신했음에  
도 불구하고, 대국민 홍보가 미흡해 적  
법하게 영업하는 대부업자와 불법사채  
업자가 모두 ‘대부업자’로 불리며 고금  
리·불법추심·과장광고 등의 부정적인  
인식만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법률상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를 ‘불법사금융업  
자’ 또는 ‘불법사채업자’로 변경하고,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금융,  
생활금융, 민생금융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불법사채업자의 대  
부행위에 대해서는 상사이자율(연  
6%)을 적용하거나 이자를 인정하지 않  
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불법사  
채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 “韓 통화정책 환경은 선진국과 달라”

### 금리동결 주장한 임지원 금통위원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환경은 주요 선진  
국과 많이 다르다”며 매과적(통화긴축  
선호) 성향을 드러냈다. 선진국은 통화  
가 경기에 역행해 움직여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선제적, 적극  
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우리나  
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동안 임지원 위원은 통화정책과 관  
련해 중립 성향으로 분류됐었다. 하지  
만 지난달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내릴 당시 이  
일형 금통위원과 함께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을 제시하며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바  
있다. 임 위원이 다시 한 번 매과적 성향  
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  
은 낮아질 전망이다.

임 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의  
작동과정이 개별 경제의 금융·경제 구조  
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선택이 주요 선진  
국과 어느 정도 차별화되는 것은 결코 이  
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에 따르면 미 달러, 일본 엔화  
등 선진국 통화는 안전통화로 여겨져  
글로벌 경기흐름이 악화될 때 통화 가치  
가 상승하는 경기역행적 움직임을 보인  
다. 반면 신흥국 통화는 경기순행  
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경기 하방의 위  
험을 완화해 통화정책의 경기안정화 기  
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임 위원은 “만일 특정 국가의 통화가  
치가 글로벌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하락할 경우 그 자체가 경기에 대한 하  
방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통화정  
책 완화기조 전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 달러화와 같이 통화 가치가



임지원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1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통화정  
책의 경기안정화 효과가 일부 상쇄된  
다”며 “다른 모든 여건이 동일하다면 통  
화 가치가 역행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의  
통화정책이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이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의 흐름을 중심으로 형  
성되는 경향이 많았다”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환경이 주요 선진국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  
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대외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  
우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금융  
상황이 간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만큼  
금융안정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임 위원은 “만일 특정 신흥국의 대외  
건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경우  
대외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와 자  
본유출로 통화 가치 하락 정도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전반적인 국  
내 금융상황을 간혹적으로 변화시키면  
서 실물경제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 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안정성  
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아  
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  
했다.

/김희주 기자

## 증권가, 아시아나 품은 현산 목표가 낮춰

(HDC현대산업개발)

목표가 하향 조정 등 주가 뒷걸음  
증장기적으로는 ‘긍정적’ 관측도  
하나금투 연구원 “불확실성 존재”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증권업계는 “당분간 수익  
성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HDC  
현산의 목표가를 잇따라 하향조정할 태  
세다. HDC현산의 기업 가치가 크게 변  
하는 시기인 만큼 관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3일 증권업계는 HDC현산이 아시아  
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우려감’을 드러낸 투자보고서를 냈  
다. 이날 HDC현산 주가 역시 하락했다.

증권업계는 주가 눈높이를 낮췄다.  
DB금융투자는 HDC현산의 12개월 목  
표가를 기존 3만8000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했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4  
만6000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다. 메리  
츠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며 목표주가 3만7000  
원을 제시했다.

목표주가 낮추지 않았지만 주가가  
당분간 약세에 접어들 것인 전망도  
나왔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아시아나 인수과정에서의 상각이나 대  
손 등의 추가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면서 “주가는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해  
약세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HDC  
현산의 적정가 산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남아 있고, 때문에 HDC현산의  
현금자산이 어떻게 변할 지 예상할 수  
없어서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계열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의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현행 공정  
거래법상 지주사 손자회사는 ‘손자회사  
의 자회사’인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  
유해야 한다. HDC현산은 아시아나의  
자회사를 제 3자 매각하거나, HDC현  
산이 잔여 지분을 시장에서 모두 사들  
여야 한다.

HDC현산의 적정한 가치평가에도  
어려움이 있다. 채 연구원은 “이번 인수  
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을 비즈니스모델  
(BM)로 하는 HDC현산에 대한 실적추  
정과 밸류에이션(가치)이 사실상 큰 의  
미 없어졌다”면서 “이제는 자본 2조,  
자산 4조5000억의 부동산 기업이 아니

라 자산 11조, 부채 9조6000억원의 아시  
아나를 연결로 잡는 ‘항공산업+부동산  
업’이라는 복합기업으로 거듭났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HDC현산은 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개  
발사업 등으로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인수로 보유현금의 상당  
부분이 인수 자금을 투입돼 기존 본업  
에서의 투자 계획은 조정이 필요할 것”  
이라며 “정도에 따라 기업 가치와 실적  
변화가 클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장기적으로 긍  
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HD  
C현산의 의지도 강력한 데다 아시아나  
항공의 정상화에 산업은행 등 정부 차  
원의 의지도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규제산업  
으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아시아나  
항공 정상화에 대한 정부 측 기대가 높  
은 상황”이라며 “HDC그룹과 미래에  
셋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  
이 빠르게 정상화되면 HDC현산의 기  
업 가치는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9월 시중통화량 7.6% ↑... 42개월 만에 최대

한은 7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

지난 9월 시중 통화량 증가세가 대폭  
확대됐다. 증가율이 7%대를 기록한 것  
은 2016년 12월(7.5%)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9년 9월  
시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지  
난 9월 광의통화(M2)는 2853조3000억  
원(평잔·원계열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

비 7.6% 증가했다.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증가율  
은 2016년 3월(7.8%) 이후 3년 6개월 만  
에 가장 높았다.

M2는 언제나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  
으로 현금통화를 비롯해 요구불예금,  
수입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  
(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 상품이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계정조정계열 기준으로는 2852조원  
으로 전년 대비 0.7% 늘며 8월(0.9%)보  
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9조8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증권도 4  
조6000억원 늘었다. 머니마켓펀드(M  
MF)는 6조원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가  
계 및 비영리단체가 10조4000억원, 기  
업이 5조7000억원, 기타금융기관이 2조  
원, 기타부분은 4000억원 증가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소중한 사람에게 피로회복을 선물하세요!



대웅 우루사 연질캡슐 360캡슐 대용량 세트

## 팩트까지 생각한다면 역시 우루사입니다

### 팩트1

59년 전통의  
**국내 판매 1위 간장약**

[2018년도 간장약 부문 IMS DATA 기준]

### 팩트2

임상에서 검증된  
**피로회복 효과**

### 팩트3

임상에서 검증된  
**간수치개선 효과**

[임상시험 결과 SCI급 국제임상저널 UCP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2016년 3월호에 게재]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에-

## 기준은 팩트! 선택은 우루사!



## UDCA는?

- 간의 노폐물 및 독성물질의 담즙배설을 촉진
- 불규칙적인 생활로 지친 간을 보호
- 간내 혈류량을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높임. 비타민 B1, B2는 피로물질의 축적을 방지

광고상위권 2019-1480-002801

문의: **080-550-8308~9**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약주문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약다 남은 약,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안전하게 수거해 드립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전기차 대체 가속 페달... 정유사 수익은 '빨간불'

전기차 환경이슈에 가파른 성장세  
2014년 이후 연 59% 성장률 기록

정유업계, 수급불균형은 더 심화  
내연기관 차량 감소에 수익성 ↓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중장기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모아진다.

전기차 시장은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며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꼽혔던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친환경 자동차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중장기적 수요 하락이 예상되면서 정유사의 주력 제품도 함께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이제는 자동차 시장의 축이 석유가 아닌 '배터리'로 옮겨가는 듯한 모양새다.



여수에 있는 정유·화학 산업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정유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동차 업계 또한 석유가 아닌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전기차 시장으로 흐름세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 전체 석유 제품의 수요에서 운송 부문이 약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내연기관 차량이 감소할수록 정유사가 입을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전기차 시장은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전세계적으로 230만대의 전기차가 팔리

면서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5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2025년 기준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내건 전기차의 판매 목표치를 종합해보면 2200만대 내외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이 2018년 기준 3%에서 1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석유 제품의 수요 둔화를 걱정하는 이유다.

반면 정제설비의 신증설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유업계의 수급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2015~2017년 평균 40만 배럴(일일기준)에 불과했던 정제설비 신증설의 규모는 2021년 연평균 120만 배럴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내년에는 중국의 저장 페트로케미컬과 사우디아의 아라코,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등 각국에서 총 112만5000

배럴의 신증설을 계획 중이며 2021년에는 중국의 시노펙, 나이지리아의 단고테, 인도네시아의 페르타미나 등에서 234만5000 배럴의 정제설비를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세계 석유 수요의 증가 규모인 100만 배럴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금 당장에 정유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미국, 유럽 등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타격을 입을 만큼 전기차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며 "아직 내연기관 차량이 진출할 수 있는 신흥시장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설비에서 나오는 나프타 등 화학제품은 수요가 늘어 석유 수요가 감소하는 데 따른 만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검색, 로그분석 넘어 보안 사업 진출”

### 엘라스틱코리아 기자간담회

전 세계 8800개 이상 기업 고객 확보  
엘라스틱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공급

엘라스틱코리아가 기존의 검색과 로그분석을 통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출시한 보안 솔루션 '엘라스틱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솔루션 공급에 집중하며 보안 사업 강화를 꾀한다.

엘라스틱 코리아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전략을 발표했다. 엘라스틱코리아 김재성 지사장은 "엘라스틱은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시간 검색 및 로그분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 세계 90개국에서 88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장은 지난 6월 엘라스틱의 한국 지사장으로 임명돼 한국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김 지사장은 25년간 IT업계에 종사한 전문가로, 엘라스틱 한국 지사장에 임명되기 전에는 SAP의 자회사인 컨커의 한국영업 총괄을 역임한



엘라스틱 코리아 김재성 지사장이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엘라스틱 코리아

바 있다.

김 지사장은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 현대차그룹, 포스코, SK텔레콤, LG, KB국민카드, 11번가, 이베이, 네이버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선두업체들이 엘라스틱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리셀러와 전략적 파트너 등 다양한 형태의 13개 협력사가 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장은 업종별 시장공략 강화를 위해 자사의 다양한 솔루션을 분야별로 구축할 수 있는 협력사들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엘라스틱 커뮤니티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코스포·기재부, 유니콘 기업 육성 나서

### 2019 디지털이코노미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유니콘 스타트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2019 디지털이코노미포럼(D EF2019)'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포럼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하며, 네이버·스타트업얼라이언스·한화드림플러스·우리은행·페이스북코리아·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은라인광고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계

임산업협회 등이 후원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유니콘 기업에 주목해, 유니콘 기업의 성장전략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한다. 글로벌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 “수험생 잡아라” 전자·통신업계, ‘혜택’ 전쟁

### 삼성전자

갤럭시 핏 증정 이벤트 진행

### LG전자

액세서리·게임아이템 제공

### 전자랜드

통신사 별로 다른 사은품 준비

전자 업계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두고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 돌입했다.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노트북 등 대학 진학 준비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1일부터 이달까지 5G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험생에 카카오프렌즈 액세서리 패키지'와 '넷마블 인기 3종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역시 14일부터 12월말까지 '갤럭시 아카데미 시즌1'을 통해 수험생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갤럭시 노트 10과 S10, A90을 구매하는 1999년~2002년 2월 28일 출생 수험생에 갤럭시 핏을 증정하는 '갓스물의 스.학.행'이다.

가전 유통사 전자랜드도 나섰다.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모바일을 구매하는 수험생에 스키장 1인 리프트 이용권과 장비 렌탈 50% 할인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통신사별로 다른 사은품을 준비했으며, 갤럭시 위치를 구매



전자랜드는 수험생 스마트폰 구매자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자랜드

하는 고객에는 전자랜드 포인트 5만점도 얹어준다.

통신사까지 동참했다. SK텔레콤은 수험생에 콘서트 초대와 제휴할인 등을 제공하는 '2019 수고0페'와 함께, 5GX 요금제에 가입한 수험생 중 추첨을 통해 항공권 등 선물도 준비했다. 극장과 사진관 등 할인 혜택과 T데이 가격 할인도 예고했다.

KT는 삼성전자와 함께 '갓 스몰 페스티벌'을 열고 동시에 '일상이상 갤러리' 오픈 기념 콘서트에 14~30일 스마트폰을 개통한 수험생을 초대한다. '수험생 꿀혜택' 이벤트로 수험생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LG유플러스는 전자랜드 프라이스킹 'U+ 특가몰'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종전에 제공하

던 통신요금 포인트를 2배로 선물한다. 2000~2002년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프로모션이 이어지는 이유는 수능 직후 수험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프로모션을 통해 40% 가까운 판매 성장을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플래그십 등 고급 기종 인기가 높다는 후문이다.

대학입학 결과가 발표되는 12월 이후에는 노트북 등 IT 기기 인기가 치솟아 오르는 만큼, 스마트폰이 아닌 분야에서 새로 프로모션을 시작하는 분위기다.

가전 업체와 유통사들도 12월경부터 노트북을 중심으로 한 예비대학생 프로모션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김재우 기자 juk@

## 두번째 자율주행... 엠디이, 셔틀버스 실증

시속 20~50km로 왕복 7.7km 운행

엠디이(MDE)는 지난 12일 세종시 BRT(Bus Rapid Transit) 도로에서 자사의 자율주행 셔틀버스로 자율주행 실증 두번째 시승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 국제자유특구기획단이 주최한 '세종특구 자율주행차 시승행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엠디이 자율주행 셔틀버스에 탑승했다.

엠디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센터부터 합강교차로

를 지나 다시 산학연클러스터센터로 돌아오는 왕복 7.7km 구간을 운행했다. BRT 구간에서 운행된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별다른 이상이나 사고 없이 시속 20~50km의 속도로 주행을 마쳤다. 엠디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아직 GPS가 잡히지 않는 터널에서의 운행은 다소 불안했으나 나머지 구간에서는 안전하게 운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배한님 기자



# 청와대 출신 참모진 60여명 내년 총선 출마설 무성

## 총선 앞두고 靑내각 개편설 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엔 50명, 실제론 60명 넘어”  
김현미·박영선 장관 등 연관 해석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내각을 둘러싼 개편설이 증폭되고 있다.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진의 총선 출마설이 연이어 고개를 들고 있고, 후임 인사들의 하마평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YTN ‘뉴스엔이슈’에 출연해 청와대-내각 개편설 관련 “현재 청와대에 있는 분 중에서도 추가로 (내년 총선에) 나올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또)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공직사퇴 기간이 내년 1월 17일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내년 1월 17일 전에는 추가로 나올 분들도 매듭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인물 관련) 보도는 ‘50명’ 정도 됐는데, 이미 청와대 근무했다가 나오신 분들, 또 조금 더 나오실 분들 합치면 조금 더 된다. 6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며 “국회는 대표성·비례성이 여야를 막론하고 보장이 돼야 하지만 너무 편향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당 안팎에서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이 뜬날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개각설이 고개를 들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만찬 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박영선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총선 출마설과 연관 깊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청와대 참모진 출마설도 마찬가지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경기 부천 소사·서울 구로를 출마설, 강기정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의 광주 북구갑 출마설 등이 그렇다.

이른바 ‘가족 비리 논란’으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추 의원은 법조계(관사) 출신에 당대표 이력은 물론, 검찰개혁 이해도가 뛰어난 인물로 정평이 났다. 이에 여당에서는 청와대에 추 의원에 대한 추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란 점도 추천 의견에 힘을 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내각 개편설이 증폭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문재인 정부 후

반기 국정동력을 가를 중대변수가 ‘인사개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특히 청와대-내각 중심으로 개편설이 나온다”며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직 인선이 추후 문재인 정권 국정기조를 반영할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현 정권의 탕평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연말 교체설이 나오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에 탕평 인사가 행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정계 전언이다. 실제 노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에서 최재진과 만나 “탕평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이 총리 후임으로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중진 의원이자 노련한 정치력을 가진 인물로 정평이 났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작은기업 규제 136건 내년까지 풀린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소상공인 건의사항 발로 뛰어 풀어”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큰 덩어리 문제를 건의합니다. 우리 옴부즈만이 이번에 ‘작은기업’ 규제를 해결한 것은 소상공인, 노점상 등 소통의 통로가 그동안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건의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발로 뛰어서 푼 규제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소통의 통로가 적어 외면받던 자영업자·소상공인·창업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 규제 136건이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다니는 결과다. 규제개선 과제는 오는 2020년까지 전부 해결될 예정이다.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애로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중기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구에서 연 ‘중기 옴부즈만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에서 직접 발굴한 것이다.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및 적극 행정으로 작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를 없앨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작은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136건이 풀린다. 중기부는 이 중 관행적이고 관습적

으로 행하던 4대 분야 40건 규제를 주요 개선과제로 정했다. 대부분 시행령에 해당해 정부 부처 등에서 국무회의로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로 꼽힌 4대 분야는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완화(9건) ▲생존·성장 저해규제 합리화(15건)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19건) ▲현장으로 맞춤형 해소(6건)다.

공유오피스 입주 스타트업의 사업자등록 애로사항은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의 대표사례다. 지금까지 사업장 적합성 판단기준이 서로 달라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유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먼저 허용한다. 아울러 생존과 성장 저해 규제로 꼽히던 흡소빙 정액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기업의 프라임 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율도 축소했다.

이 밖에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를 국유지와 동일하게 80%까지 감면해주고, 공동판매장에서 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준수세 성격을 가진 규제와 현장애로 등이 해소된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왼쪽)와 김현아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정시확대 50% 이상)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치권, 대입 ‘정시확대’ 한목소리에 교육계 “지역단위 경쟁 심화” 우려

정부, 이달말 공정성강화 방안 발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맞물려 정치권이 교육제도 개선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탈 입시비리 의혹 이후 여야 모두 ‘정시확대(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고소득·고학력·저소득·저학력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대입 정시 비중 상향 내용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언한 기조에 따라 정시 비중을 확대에 나섰다. 교육계가 전망하는 정부의 정시 비중 상향 시기는 2022·2023학년도 대입이다. 현행법상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년도 개시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해야 한다. 정시 비중은 40% 정도 상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軍, 사망사고자 진상규명... 6명 ‘순직’ 결정

국방부 “선임병의 구타 등 ‘자살’ 원인”

국방부는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돼 재심사 요청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해 전원 순직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방부는 제19-19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국방부는 재심사 권고자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문의 기초자료를 검토 후 1차로 6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 전원 순직

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이번 순직 결정된 6명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됐다.

고 김00 일병은 1985년 입대해 소속 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단순 자살하 것으로 처리됐

지만,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입은 무릎부상, 가해자 피해자 격리하지 않은 지휘관 관리소홀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됐다.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하였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 10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형철 기자 captinm@

# 경영난 회사 사퇴, 자진사직 아닌 ‘해고’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뒀다면 이를 자진사직이 아닌 해고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며 자발적 퇴사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A씨 등이 자

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식당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이 필요했다면 직원 중 해고할 사람을 특정했어야 함에도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해 직원 모두에게 자진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손현경 기자 son89@



# 수능 이후 정시 지원전략 본격 돌입... 3번의 기회 살려야

〈정시 가·나·다군〉

정시모집 22.7% 선발... 전년비 ↓ 대다수 수능 100%, 일부대 90% 반영 전형방식·비율, 전년과 다소 상이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면서 올해 수험생들은 정시모집 모드로 돌입한다. 올해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전체 정원 대비 22.7%(7만9090명)로 전년도(8만2972명)보다 약 3800여명 감소한다. 대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3 재학생 위주로 응시자가 급감해 전체 경쟁률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정시모집은 대부분 수능 성적 100%를 적용해 선발한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계열·모집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이나 반영 방식, 반영 비율 등을 파악해 지원전략을 짜야 한다.

특히 가나다군별 1곳씩 총 3번의 지원 기회가 부여되므로 자신의 수능 성적을 가채점을 통해 파악해 최종 응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수험생이 고시장을 확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대학을 선택하자. 입시전문가들은 보통 전년도 입시결과에 따라 상향·적정·하향 지원을 권한다.

대학마다 군별 모집시기와 단독 모집

또는 분할 모집 대학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자. 가군은 서울대 등 138개교, 나군은 고려대, 연세대 등 138개교, 다군은 중앙대 등 121개교다.

대다수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을 뽑지만 건국대·동국대·한양대나군 등 일부 대학은 수능 성적에 학생부 성적 10%를 반영하므로 학생부 성적이 유리하다면 이들 대학 지원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나 전형 방식이 다소 다르고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서강대는 가군 전체 모집단위에서 전년도에 이어 문이과 교차 지원이 허용되고 지난해 적용했던 학생부 비교과 10%를 빼고 수능 100%로 전형한다. 또 문이과 전체 모집단위에서 수학기형 가산점이 10% 부여된다.

한양대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군은 수능 100%로, 나군은 수능 90%와 학생부 10%로 선발한다. 다만 상경계열 모

집단위의 경우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어 30%, 수학나형 40%, 영어 10%, 사탐(2과목) 20%로 사탐 비율을 낮춘 대신 수학나형 비율을 높였다.

수능 성적 활용 지표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 등이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로 반영하고,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반면 국민대·숙명여대 등은 국어, 수학, 탐구 모두 백분위 성적을 활용한다.

올해 대입 정시에서는 특히 절대평가로 전환된 후 3년차를 맞은 수능 영어 영역이 이전 입시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등은 영어영향력이 작은 반면 연세대, 중앙대 등은 상대적으로 영어 영향력이 큰 편이다. 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 등의 영어 변별력은 중간 정도 수준이다.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다면 대학 선택의 고민이 없겠지만 영어 2등급이나

특히 3등급을 받을 경우, 국어·수학·탐구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영어 영향력이 큰 대학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올해도 전년도에 이어 국수탐 기준으로 영어는 등급에 따른 가감점 정도로 합격선을 예측해 지원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최상위권 수능 고득점자 중 인문계열에서는 수능 영역별 가중치, 제2외국어 영역의 고득점 여부에 따른 사탐 1과목 대체 등이 중요하다. 자연계의 경우는 서울대(서로 다른 과목 I, II), 연세대(서로 다른 과목), 고려대(과탐 선택 제한 없음)가 과탐 지원 가능 조합이 다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나 성적 활용 지표, 전형 방식 등이 다소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방식을 비교해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을 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사립대 교육비 3년 연속 ↑... 포스텍·연암대 1위

대전가톨릭대, 수원가톨릭대 順 전문대는 연암대학이 가장 높아 1인당 평균 교육투자비 1510만원

2018년 회계연도 기준, 교육투자비가 가장 많은 사립대는 9328만1000원인 포스텍(포항공대),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2298만7000원을 기록한 연암대학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주요 평가지표이기도 하다.

13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 기준 사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는 1510만원, 사립전문대학은 1030만원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에는 연구학생경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등 교비회계 교육비와 산학협력단회계 교육비 등으로 이뤄지며, 대학이 학생 1인당 투자한 교육비 총금액을 뜻한다. 사립대는 2016

년 1440만원, 2017년 1490만원, 2018년 1510만원의 추이다. 사립전문대학은 2016년 990만원, 2017년 1020만원, 2018년 1030만원으로 사립대와 전문대학 모두 최근 3년 동안 교육투자비가 상승했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비가 가장 높은 사립대는 포스텍(9328만1000원), 사립전문대학은 연암대(2298만7000원)로 밝혀졌다. 사립대에서는 포스텍에 이어 대전가톨릭대(4455만3000원), 수원가톨릭대(3833만1000원), 코리아텍(3791만6000원), 연세대(3173만4000원) 순으로 톱5다. 사립전문대학은 연암대에 이어 농협대(2196만5000원) 경북과학대(1757만7000원) 송곡대(1425만5000원) 연암공대(1424만원) 순이다.

교육비 환원율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2016년 188.7%, 2017년 195.8% 2018년 198.3%, 사립전

문대학 2016년 163.8%, 2017년 169.7%, 2018년 172.4%다. 교육비 환원율은 총 교육투자비를 등록금수입으로 나눠 백분위로 표시한 것이다. 교육비 환원율은 학교가 등록금을 얼마나 교육비에 투자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대학 기본역량진단' 점수에 반영된다.

대학별 교육비 환원율은 일반대(신학대 제외)에서는 포항공대가 1315.9%로 가장 높았고 코리아텍 902.1%, 금강대 369.7%, 차의과대 356.6%, 연세대 317.3% 순이었으며, 전문대학에서는 농협대학 432.6%, 연암대학 375.9%, 경북과학대학 304.5%, 송곡대학 277.9%, 연암공과대학 265.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은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는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남서울대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체험전시회 '호응'

남서울대학교가 12일 남서울대 지식정보관에서 '제5회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체험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체험 전시회는 남서울대 가상증강현실 전공 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직접 개발한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와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가상현실 콘텐츠도 함께 전시됐다.

작품은 정조대왕 능행반차도, 천안시의 국보7호 갈기비, 장영실의 과학업적

작품과 십이지간 등 역사적 소재를 이용한 콘텐츠와 커피 바리스타와 악기 및 박사 등을 소재로 한 문화적 작품, 어린이용 학습 콘텐츠, 기타 게임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ActiVaR 사업의 자동차 엔진 조립 시뮬레이션과 조류독감 및 구제역 등 가상현실로 가축방역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등도 함께 선보였다. /손현경 기자



/삼육대

## 삼육대 예비창업자 발굴 위한 '굿즈 공모전'

삼육대학교(총장 김성익) 대학일자리본부 디자인 분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2019 SU-Start Up 디자인 창업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상식은 12일 교내 창업교육센터에서 열렸다.

공모전은 '삼육대 굿즈 디자인 아이디어'를 주제로 열렸다. 대학의 아이덴

티티를 반영한 캐릭터나 로고 상품을 개발해 디자인 시안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단은 모집된 작품 중 ▲독창성 ▲완성도 ▲대중성 ▲상품화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본선 진출팀 17개 팀을 선정했다. 이후 이날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손현경 기자

## 한양사이버대, 4차 산업혁명 변화에 최적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변화가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 사이버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양사이버대광고미디어MBA서구원 주임교수는 "광고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는 기존의 사고로는 생존이 어려우며 새로운 생태계로 직접 들어가서 몸소 체험하고 변화해야 한다"면서 사이버대가 이런 변화에서 최적화된 교육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양사이버대광고미디어MBA는 이런 변화에 맞춰 4차 산업혁명 특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서 교수는 "특강 시리즈를 통해 변화를 체험하면서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MBA 서구원 교수와 재학생 이현숙 커미지컨설팅 대표가 1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MBA

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일반 대학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변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사이버대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캠퍼스를 활용해 빨리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 건국대 올해부터 논술 100% 선발

건국대학교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KU논술우수자)전형의 논술고사를 16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문계 논술은 오전 10시부터, 자연계는 오후 3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올해 논술전형에는 451명 모집에 2만 9136명이 몰려 64.6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논술전형은 그동안 논술60%에 학생부교과 40%를 반영했으나 올해부터 학생부교과 반영을 폐지하고 논술 성적만 100% 반영한다.

대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도입됐다.

건국대 논술전형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달 10일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한성대 '예술가 레지던시' 입주 작가 무료 전시회

한성대학교는 오는 18일까지 서울 성북구 리플아트갤러리에서 캠퍼스타운 사업단 문화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또 보고-사이의 흐름을 보다'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시회는 주중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

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한성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2기 작가 14명의 최종 결과보고전 형태로 진행된다. 작가들은 작년 9월부터 1년3개월 동안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일대와 성곽마을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해왔다. /한용수 기자



무 대 위 에 피 어 난 대 서 사 시

기억하나요, 그날의우리

# 여명의 눈동자 MUSICAL

2020.1.23-2.27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SUKI COMPANY 후원 





**NH농협은행, 의왕서 농촌일손돕기**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 정보보안부문이 경기도 의왕시 소재 농가를 찾아 수확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나완진 부행장(가운데)을 비롯한 정보보안부문 임직원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해 콩 수확을 도왔으며, 농작물 수확 후 버려진 농가의 폐비닐 수거를 함께했다. /NH농협은행

## 동원그룹, '인터넷 소통대상'서 대상 영예

동원그룹이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 12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시상식에서 그룹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은 인터넷소통지수(ICS)와 소셜소통지수(SCSI)를 분석해 소통을 잘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동서식품 '제 12회 동서커피클래식' 성료

동서식품은 지난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 12회 동서커피클래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서커피클래식은 지난 2008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한 동서식품의 대표적인 문화 나눔 사업이다. 지난 11년간 가을이면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대구, 광주, 창원, 전주, 춘천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찾아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클래식 공연을 무료로 선사해왔다. 총 누적관람객 수는 1만 6000여 명에 달하며 매 공연마다 지역 /동서식품



지난 12일 진행된 '제 12회 동서커피클래식'에서 이광복 동서식품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서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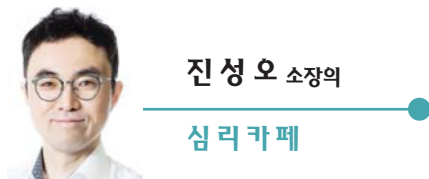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아워홈-외식업중앙회 대중소업체 동반성장 '맞손'**  
아워홈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에 위치한 컨세션 사업장에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단이 방문해 '외식업 운영 우수 사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외식업 운영 우수 사례 견학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아워홈 등 외식 대기업 22개사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맺은 자율적 '음식점업 상생협약'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아워홈



**맥도날드, 최고령 직원에 특별한 은퇴식**  
맥도날드는 지난 8일 서울시 중로구 맥도날드 본사에서 임갑지 크루의 은퇴식을 열고 약 100명 맥도날드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임갑지 크루에게 지난 17년 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임갑지 크루는 올해 92세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경기도 양주시 자택으로부터 20km 떨어진 맥도날드 미아점에서 근무했다. /맥도날드



**진성오 소장의 심리카페**  
망상(妄想, delusion)은 실제 근거가 없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것이다. 보통은 병리적인 수준의 믿음을 의미하지만 믿음보다는 가정이나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상학적으로는 망상은 사실과 다르고 설득되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의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부합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환자는 망상 내용을 확고하게 신봉하고 스스로 진정 옳다고 믿는다. 이런 면에서 주관적으로 정상적인 믿음과는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면에서 간단히 정리하면 망상이란 자신은 사실이라고 믿으나 타인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이다. 망상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가장 흔한 형태는 피해망상이다. 보통 자신의 삶이 타인으로부터 방해 받고 도움은 커녕 해를 입는다고 느낀다. 이것의 변형된 형태의 하나는 편견 망상이다. 이 망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익 때문에 무시당하고 경시되며 승진에서 추월당한다고 믿는다. 가해자는 꼭 사람만이 아니라 기계, 체계, 조직, 제도일 수도 있다. 다른 흔하게 볼 수 있는 망상 중 하나는 병적 질투가 있다. 병적 질투는 지배관념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 '그녀는 나에게 속하고' '나는 그녀에게 속한다'. 그런데 이 서로의 지배 관계에 누가 끼어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병적인 질투를 보이는 환자는 자신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 자신만이 누려야 하는 정절의 권리를 침해 받는다고 느낀다. 특히, 이런 경우 망상의 내용은 성적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질투 망상에서 희생자는 성적으로 더 많은 매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스스로 과거 성적으로 문란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배우자도 비슷한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이런 망상은 폭력을 동반하게 되고 망상의 대상이 되는 연적 보다는 배우자에게 더 강하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면에서 스토킹도 가볍게 진행되는 질투 망상의 색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치료자들은 망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나 설득하기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접

## 망상 (妄想)

근한다. 그래서 망상의 주제 자체를 가지고 논박하거나 설득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여긴다. 아직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늘에 보는 태양이나 달은 둥근 데 지구만 어떻게 평평한가? 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그들은 다양한 논박을 한다. 이런 형태의 망상이 심하게 작동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거나 타인을 괴롭힌다면 우리는 치료를 권유한다. 그러나 어떤 망상들은 사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언 듯 볼 때 망상으로 보였던 생각들이 실제 실천되면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 면도 있다.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이 없었다면, 혹은 우주를 개척할 것이라는 망상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와 같은 시대를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좋은 망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망상일 수 있겠지만, 실현 가능한 좋은 망상인지의 여부는 인간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그 망상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그려 본다면 좋은 망상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망상을 가져본다. /당신의마음연구소장

## LG하우시스, 독립유공자 후손 자택 개보수 지원

### 故 안도용 선생 아들 등 6명 자택 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완료 기념식

LG하우시스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6명의 자택 개보수 활동을 했다. LG하우시스는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안창호씨 자택에서 광복회 허현 부회장, LG하우시스 이동주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완료 기념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경북 영일 지역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른 고 안도용 선생의 아들 안창호씨를 비롯해 고 윤학수 선생의 자녀 윤용목씨, 고 정만산 선생의 외손자녀 표종혁씨, 고 이발영 선생의 외손자녀 원유선씨, 고 장기영 선생의 손자녀 장원순씨, 고 김성근 선생의 손자녀 김문덕씨 등 총 6명이다. LG하우시스는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주택 노후도 및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안창호씨 자택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완료 기념식'에서 (왼쪽부터)LG하우시스 홍보·대외협력담당 이동주 상무, 독립유공자 후손 안창호씨, 부인 윤옥필씨, 광복회 허현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하우시스

상자를 선정했으며 창호·바닥재·벽지 등 인테리어 자재를 지원해 지난달 말부터 2주간 개보수 공사를 진행해 최근 모두 끝났다. 이날 기념식에서 안창호씨는 "기업이 앞장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까지 기억해주고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니 감사하다"고 전했다. LG하우시스는 2015년부터 애국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현충시설 개보수'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총 9곳의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개보수 했으며 독립유공자(후손) 및 국내외참전용사 26명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부음**
- ▲문기수(한국프로골프협회 창립회원)씨 별세, 문성욱(한국프로골프협회 투어 프로)씨 부친상 = 12일 밤, 경기도의료원 파주 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031-940-9370
  - ▲신승호씨 별세, 신용식(아시아경제 전략사업부장)씨 부친상 = 12일 오전 3시 1분, 강남성심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02-833-3200

- ▲양수복씨 별세, 양옥화(대한상공회의소 표준보급팀 과장)·청자(서운중학교)·원모(데코A 이사)·광모(매스코 차장)씨 부친상, 체제만(애니랜드 이사)·김성종(센추리 이사)씨 장인상 = 1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4일 오전. 02-2258-5940
- ▲이용인씨 별세, 홍호식(HB물산 회장)·완식(성우마린 대표이사)씨 모친상, 채봉기(대영엔지니어링 전무)씨 장모상 = 11일 오후 11시 3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30분. 02-3010-2230
- ▲임헌용(전 충남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씨 별세, 임재수 씨 부친상, 채신일(전 대우건설 이사)·김남철(대전만년중 교사)씨 장인상 = 13일 오전, 대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42-280-8181
- ▲차병권씨 별세, 차재훈(가온건설대표)씨 부친상 = 13일 오전 1시, 충남 논산시 놀이 장례식장 특2호,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41-733-0404



“냉동 베이커리도 온라인이 대세”

# CJ, 신세계에 이어 삼양사도 시장 진출

**CJ제일제당** ‘고메 베이커리’ 2종  
**신세계푸드** ‘베키아에누보’ 케이크  
**삼양사** 스위스 브랜드 ‘히스탕’ 론칭  
**롯데마트** PB상품 ‘스윗허그’ 출시

최근 보급이 확대된 에어프라이어기 영향으로 냉동 베이커리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또한 소비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 비중이 높았던 베이커리 영역에서도 온라인 전용 제품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사 대응으로 즐길 수 있는 브리또, 크로크무슈 등 냉동 베이커리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71억원이다. 올해 9월 기준 186억원으



고메 냉동 베이커리

/CJ제일제당

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성장했으며, 연말에는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냉동 베이커리 스낵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고메 베이커리’를 출시했다.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 조리로 집에서 갓 구운 빵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고메 베이

크’는 바삭한 페스츄리 속에 불고기와 각종 채소, 치즈로 속을 꽉 채운 ‘불고기 페스츄리 베이커리’와 치킨과 치즈를 넣고 크림소스로 맛을 낸 ‘치킨 페스츄리 베이커리’ 등 두 가지다. CJ제일제당은 에어프라이어에 최적화된 전용 반죽을 개발해 빵의 풍미, 결, 식감을 살렸고 고기의 육즙을 살려 전문 베이커리 수준의 맛품질을 구현했다. 소비자가 별도로 반죽을 발효하거나 오븐에 구워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했다. CJ제일



베키아에누보 레어프로마주 케이크 /신세계푸드

제당은 ‘고메 베이커리 생지’ 제품도 함께 선보여 냉동 베이커리 시장에서 지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고메 베이커리 생지’는 빵 반죽 상태인 생지를 급속 냉동한 페스츄리 6종과 스콘 2종 등 총 8종이다.

신세계푸드는 이마트내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하던 호두파이, 호두 타르트, 치즈 케이크 등을 온라인 상품으로 판매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 하기로 했다. 온라인 프리미엄 베이커리 제품으로 ‘베키아에누보’ 냉동 케이크 3종을 출시했다.

‘베키아에누보’ 냉동 케이크 3종은 ‘시그니처 치즈케이크’, ‘레어프로마주 케이크’, ‘구스타스토 리코타’다. 신세계푸드 소속 파티셰들의 레시피를 적용해 만든 프리미엄 케이크로 이탈리아 레스토랑 ‘베키아에누보’ 매장에서 즐기던 고급 케이크의 맛을 그대로 구현한 제품이다.

삼양사의 식자재유통사업 브랜드 ‘서브큐’는 스위스 냉동베이커리 브랜드 ‘히스탕’을 론칭했다. 히스탕은 유럽 냉동베이커리 1위 기업인 아리스타 그



히스탕 /삼양사

룹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로 스위스 특유의 장인정신에 기반한 ‘아티장 베이커리’를 표방한다. 세계 최초로 RTB(발효 과정을 생략하고 구울 수 있는 냉동베이커리) 크로와상을 개발하는 등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히스탕은 장인이 만드는 정통 유럽빵을 냉동베이커리로 구현했다. 서브큐는 지난 10월 막내린 ‘제 18회 서울 카페쇼’에 참가해 신규 브랜드를 소개했다. 자체 개발, 생산한 냉동베이커리를 비롯해 정통 유럽식 빵 브랜드 히스탕, 프랑스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쿠프드팻’, 정통 덴마크 데니쉬 브랜드 ‘테데 몽크’, 미국식 칭키 쿠키 브랜드 ‘오티스 스펙크마이’ 등을 독점 수입한다.

롯데마트도 에어프라이어 전용 베이커리 PB상품 스윗허그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크로와상, 애플파이, 크랩치즈 등 모두 3가지다. 해당 상품들은 해동 과정 없이 에어프라이어에 10분간 조리하면 베이커리 수준의 품질을 갖춘 빵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 ‘빅스마일데이’ 올 누적 3500만개 팔렸다

이베이코리아, 1일~12일 누적판매 하루 평균 290개, 시간당 12만개씩

G마켓과 옥션, G9의 연중 최대 할인 행사 ‘빅스마일데이’의 올해 판매량이 3500만개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판매한 제품 수는 총 1억 개를 넘겼다.

G마켓과 옥션, G9를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빅스마일데이가 진행된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총 12일간의 누적 판매량이 3500만개를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하루 평균 290만개씩, 시간당 12만개씩 팔린 셈으로 역대 행사 실적 중 최대 규모다. 행사 첫해인 ▲2017년 11월 약 2000만개를 시작으로 ▲2018년 11월 3200만개, ▲2019년 5월 2800만개

등 그동안 빅스마일데이 행사를 통해 약 8000만개의 제품이 판매됐었다. 올해 11월 행사에서 3500만개를 추가로 팔아 치우면서, 4회차 만에 1억1500만개가 넘는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게 됐다.

거래 규모도 커졌다. 이번 빅스마일데이에 참여한 일반 판매자의 거래액은 10월 같은 기간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필립스코리아, 다이슨 등 공식 브랜드관을 운영한 48개 대형 브랜드의 거래액 역시 평소보다 70% 이상 신장했다.

개별 상품의 판매 실적 역시 기록적이다. 올해 누적 매출 랭킹 TOP5는 ▲미샤 앰플/크림 ▲노스페이스 아우터 ▲위닉스 제로S 공기청정기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다이슨 V10 카본 파이

버로, 이들의 평균 판매금액만 23억원이다. 작년 매출 랭킹 TOP5의 평균 금액(11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93%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국 2500여 개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한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선보인 ▲원데이패키지(기프트박스+영화티켓)는 판매 시작 10분 만에 준비수량 1500개가 완판 됐다.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선보인 ▲대형합콘(35L)은 오픈 20여분 만에 준비수량 100통이 매진됐다.

빅스마일데이 행사기간내 거래액 및 고객 분석 데이터도 공개했다. 품목별 거래액 순위로는 ▲대형가전 ▲노트북/PC ▲E쿠폰이 빅 3로 꼽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하이트진로, 美 참이슬 판매망 본격 확대

하이트진로가 미국 소주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망, 제품군 확대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한국 소주 브랜드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주류 전문체인인 ‘베브모어’에 참이슬후레쉬 등 4종이 본격 입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지 시장 확대는 물론, 가정용 시장 판로 확대로 현지인들이 집에서 보다 쉽게 참이슬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하이트진로는 베브모어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베브모어 본부를 통해 참이슬후레쉬, 진로24, 딸기예이슬, 청포도에이슬 판매를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워싱턴 등에 있는 150개 매장에 하이트진로 제품 4종을 판매 중이다. 기존 하이트진로 제품을 판매하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주류 전문체인인 ‘베브모어’에 참이슬, 진로24, 딸기예이슬, 청포도에이슬 4종이 진열돼있다. /하이트진로

던 주류전문매장인 리스디스카운트리뷰, 스페스에 이어 대규모 주류 체인에

하이트진로, 150개 매장에서 판매중 ‘일품진로 1924’도 美 전역서 출시

입점해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지난 10월 ‘일품진로1924’를 미국 전역에 출시해 미국 내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 확대에도 나섰다. 최근 소주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연령, 성별, 지역 등 타겟이 세분화되고 있는 만큼 주류 트렌드를 반영해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일품진로1924는 2014년 창립 90년 기념주로 출시된 ‘진로1924’에 대한 소비자들의 제출시 요구에 따라 약 4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난해 국내에 처음 출시된 제품으로, 지속적인 시장 분석과 다년간의 소비자 테스트 진행을 통해 완성된 프리미엄 소주다. /박인용 기자

## 패션업계는 지금 ‘캐시미어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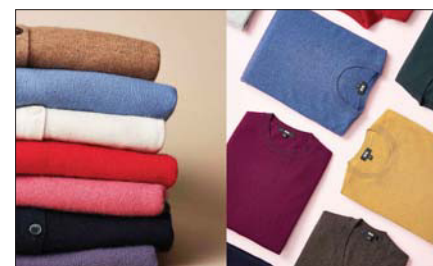
유니클로, 캐시미어 스웨터 10만원대

캐시미어는 최근 몇년간 패션업계에서 주목받는 패션 아이템이다. 그간 캐시미어는 독보적인 가벼움과 따뜻함으로 ‘섬유의 보석’이라고 불리며 일부 브랜드에서만 고가에 판매되던 소재다. 하지만 시장에 부합된 유통 과정을 지닌 브랜드들이 등장하며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겨울 시즌에도 어김없이 SPA 브랜드부터 패션 대기업, 캐주얼 브랜드 및 흡소핑까지 패션업계 전반이 캐시미어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100% 캐시미어 스웨터를 10만원 미만의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원조 조달부터 상품화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가격 단가를 혁신적으로 낮추고, 봉제 및 마무리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캐시미어 컬렉션을 선보여왔다.

이번 시즌에는 브랜드 최초로 훌가면



/유니클로

트 기술을 적용해 봉제선이 없어 한층 편안한 3D 캐시미어 니트를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장, 코튼 실루엣의 가디건과 터틀넥 튜니 등 다채로운 제품군을 출시했다.

주요 패션 대기업들도 캐시미어 소재를 활용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 전문 기업인 한섬이 2015년 런칭한 캐시미어 전문 브랜드 ‘더 캐시미어’는 2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지속적인 성장세에 기반해 최근에는 여성, 남성, 아동, 사물, 펫 상품군을 전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변모하며 각 상품군의 앞 글자를 딴 ‘WM KTP’ 상표를 등록했다. /신원선 기자

## 이마트24 ‘민생휴지 시리즈’ 인기

롤휴지·갑티슈 상품군 1·2위 차지

이마트24의 초저가 휴지 시리즈가 고객들의 선택을 받으며 상품군 전체 매출을 끌어 올리고 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 10월 민생두루마리휴지와 민생미용티슈(직사각 250매 3입)가 롤휴지, 갑티슈 상품군에서 매출액 기준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가인 만큼 민생시리즈 상품 모두 판매수량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도 각 1, 2위를 차지하면서 상품군 전체 매출을 이끌고 있다.



이마트24 초저가 민생휴지시리즈 (왼쪽부터) 롤화장지 2개, 미용티슈, 휴대용티슈. /이마트24

실제로 8월 초 출시된 민생두루마리 휴지는 상품군 내 매출액 기준으로 8월 3위, 9월 2위, 10월 1위를 차지하며 갈수록 판매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8월~10월 두루마리 휴지 상품군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2.9% 증가했다.

/신원선 기자



JW중외제약 '유비팜JSC' 출범

# 베트남 교두보 삼아 아세안 시장 공략 '본격화'

베트남 제약사 지분 전체 취득  
50여 종 의약품 선보일 예정

JW중외제약이 파머징 시장 공략을 위해 베트남에서 인수한 유비팜이 공식 출범했다. JW중외제약은 베트남을 교두보로 아세안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은 베트남 풍안성에서 '유비팜JSC(EuviPharm Joint Stock Company, 이하 유비팜)' 출범식 '뉴 챌린지 데이'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JW그룹 이경하 회장,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 JW생명과학 차성남 대표를 비롯해 유비팜 양길준 법인장 등 현지 임직원 90여 명이 참석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9월 유비팜에



JW중외제약은 12일 베트남 호치민 파크하얏트 사이공 호텔에서 유비팜 인수 'Deal Closing' 만찬 행사를 가졌다.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 오운환 식약관, 윤주영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장, 이경하 JW그룹 회장, 임재훈 주호치민 총영사, 김홍수 코참회장, 우영기 서우회계법인 대표, 차성남 JW생명과학 대표(앞줄 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 지분 100%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유비팜 대표이사서 JW생명과학 양길준 상무를 선임하고 법인등록을 완료

했다. 국내 기업이 베트남 제약사 지분 전체를 취득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번

이 처음으로 JW중외제약은 유비팜에서 생산한 의약품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국가 등 파머징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2005년 설립된 유비팜은 원료·완제 의약품 생산 전문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최대 수준인 연간 19억 3700만 개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먼저 분말 주사제, 정제, 캡슐제, 점안제 등 유비팜에서 즉시 생산 가능한 50여 종의 의약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설비 보완과 품목 허가변경을 통해 생산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JW의 차별화된 제제 연구역량을 비롯한 생산·품질관리 기술을 이 전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인증도 추진하며, 향후 의약품 위

탁생산(CMO) 사업에도 나선다.

JW그룹 이경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비팜이 베트남 보건 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메이저 외국계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베트남을 발판 삼아 아세안 시장을 비롯한 파머징 마켓에서도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은 유비팜 출범식에 앞선 12일에는 베트남 호치민 파크하얏트 사이공 호텔에서 임재훈 주호치민 총영사, 윤주영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장, 오운환 식약관 등을 초청해 'Deal Closing' 만찬 행사를 가졌다. JW중외제약의 유비팜 인수는 코트라 M&A팀과의 호치민 무역관의 도움을 받아 성사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신세계 란제리 '언컷' 커플 파자마 선보

원마일웨어 인기 관련 제품 20% ↑

신세계백화점의 란제리 PB 브랜드 '언컷'에서 커플 파자마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언컷은 이번 겨울 시즌을 맞아 홈웨어 라인을 확대했다. 커플용 파자마를 내놓으면서 남성용 파자마도 처음 출시했다. 셔츠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레트로 감성을 더한 체크 프린트가 돋보인다. 원피스로 제작된 여성용과 함께 하면 연말 선물로도 손색 없다.

체크무늬 파자마 이외에도 플리스 소재의 로브와 스웨트 셔츠도 처음 내놨다. 플리스 소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이 특징이며 올 겨울 트렌드로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이번에 만날 수 있는 로브는 귀여운 레터링 포인트가 돋보이며, 스웨트 셔츠는 가벼운 외출도 가능한 캐주얼한 '원마일 웨어(one-mile wear)'다. 원마일 웨어란 '자택에서 1마일 권 내에서 착용할 수 있는 옷'이라는 뜻으로 최근 외출복과 홈웨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



언컷 파자마 /신세계백화점

다. 밖에서는 간편하게 입을 수 있고, 안에서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싶은 2030 젊은 세대들을 반영하는 신조어다.

언컷은 이번 겨울 시즌 새로운 홈웨어 이외에도 브라렛 신제품도 선보였다. 와이어가 없어 더욱 편안한 언컷의 속옷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새롭게 출시한 2종은 글렌 체크 무늬의 '컴포트 볼륨 브라렛'과 레이스 포인트가 가미된 '레이스 내추럴 볼륨 브라렛' 제품으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위암으로 위 전체 절제... 치매 위험 30% ↑

비타민 B12 보충시 위험 낮출 수 있어  
일반인 보다 치매 위험 30% 높아

위암으로 위를 모두 절제할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위를 잘라내면서 비타민 B12의 체내 흡수를 돕는 내인자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비타민 B12를 보충하면 이러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 서울대대 최윤진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와 일반인 대조군을 비교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기간 50세 이상 이면서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모두 6만 3998명으로 이 가운데 1만 2825명이 위를 모두 절제했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교수 최윤진 서울대대 교수

대조군은 20만 3276명으로 위암 환자와 나이 및 성별 등 사회경제적 요소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만성신질환과 우울증 등 치매 발생과 연관 있는 의학적 요소 등에서 차이가 없도록 보정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위를 모두 절제한 환자는 대조군 보다 치매 위험이 30%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발생 요인 중 하나인 비타민 B12 결핍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위에는 비타민 B12 흡수를 돕는 내인자가 분비되는 데, 위를 제

거하면서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치매 환자의 47%에서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비타민 B12부족은 치매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암 환자의 비타민 B12 부족은 간과되기 쉽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위암 전절제수술 후 비타민 B12 보충 여부에 따라 치매 발생 위험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비타민 B12를 전혀 보충하지 않거나 수술 후 3년 이내에 보충을 중단한 경우 위암 전절제 수술 환자와 같은 조건의 일반인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위암 환자의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정도 높았다.

반면 꾸준히 보충한 환자들의 경우 일반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29% 감소했다. 다만 치매 종류를 세분화하여 분석했을 때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세경 기자

## KGC인삼공사 '정관장 홍삼정 농축캡슐' 출시

KGC인삼공사가 홍삼농축액을 그대로 캡슐형태에 담은 '정관장 홍삼정 농축캡슐'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삼정 농축캡슐'은 주원료인 홍삼농축액 99.1%와 홍삼뿌리에서 추출한 홍삼오일(부원료) 0.9%를 함유한 액상 캡슐이다.

'홍삼정 농축캡슐'은 홍삼농축액과 홍삼오일을 그대로 담아 휴대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캡슐의 특징상 쓴맛 없이 깔끔하게 섭취가 가능하다.

농축액 캡슐 크기를 소형화(505mg)해 고령자 및 어린이도 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캡슐 성분을 무착색료 식물유래 성분으로 만든 것도 특징이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홍삼정 농



정관장 홍삼정 농축캡슐 /KGC인삼공사

축캡슐은 홍삼농축액 그대로를 캡슐에 담은 국내 최초 제품으로 "홍삼 섭취의 불편함과 쓴 맛의 거부감을 모두 만족시킨 제품이다"고 전했다.

'홍삼정 농축캡슐'은 전국 정관장 매장 및 정관장물(정물)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CU, 한국야쿠르트와 '잇츠온' 밀키트

편의점 특성에 맞춰 1인용 패키지 제작

CU가 한국야쿠르트와 손잡고 '잇츠온' 밀키트 4종을 14일 업계 단독으로 출시한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테스트 운영한다.

'잇츠온'은 한국야쿠르트가 론칭한 HMR 브랜드로 프레스 매니저가 배달하는 간편식을 컨셉으로 국내 밀키트 시장을 처음 개척했다.

CU에서 선보이는 잇츠온 상품은 부드러운 마블링의 ▲프라임 스테이크, 다양한 버섯이 풍성하게 들어간 ▲얼큰 버섯전골, 남성형 셰프의 시그니처 레시피를 담은 ▲대파고추장불고기, 마늘과 올리브유로 담백하게 맛을 낸 ▲알리오올리오 파스타로 인기가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들로 엄선했다.

기존 잇츠온 상품의 재료 구성과 레시피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1인 가구



CUx한국야쿠르트 잇츠온 밀키트 /BGF리테일

고객이 많은 편의점 특성에 맞춰 1인용 패키지로 별도로 제작했다.

요리가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각자 실력에 맞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균 조리 시간, 요리 난이도를 패키지에 디자인했으며 조리 단계에 따른 상세한 레시피를 함께 표기했다.

또한, 다양한 요리 도구를 갖추지 못한 1인 가구도 부담 없이 요리할 수 있도록 칼, 도마, 냄비 등 기본적인 도구만 있으면 요리가 가능하게 전처리를 마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수험생 위한 역대급 혜택 '랄라블라서 힐링하세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H&B(헬스앤뷰티)스토어 랄라블라에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수험생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랄라블라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수고한 너를 위한 역대급 혜택'이라는 테마로 수험기간 메마르고 지쳤던 피부를 힐링하기 위한 '스킨케어 기획전'을 비롯해 안심과 진정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성용품 특가행사'를 진행하며 고객들의 만족감을 높일 계획이다.

또, 랄라블라 매장에 수험표를 지참하고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퓨, 문샷 제품 구매 시 추가 할인 이벤트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혜택을 선사한다.

이와 더불어 KT와 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수험생 고객들은 15일부터 다양한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현대車, 한국 최초 월드랠리 챔피언십 우승

### 참가 6년만에 도요타팀 제치고 우승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정상급 모터스포츠 대회인 2019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에서 정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팀이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종합 챔피언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019 WRC에서 제조사 부문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가 WRC에 참가한 지 6년 만에 이룬 성과다. WRC는 포장과 비포장 도로를 가리지 않고 경기가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에서 14~17일 열릴 예정이던 올해 마지막 경기가 산발로 취소되면서 큰 점수 차로 선두를 유지하던 현대 월드랠리팀의 종합 우승이 자동 확정됐다. 제조사 순위는 한 해 열리는 경기의 성적에 따른 누적 점수로 가려지는데, 현대 월드랠리팀은 13번째



현대 월드랠리팀 종합 우승의 주역 티에리 누빌 선수가 스페인 랠리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환호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경기까지 380점을 기록해 2위 도요타팀의 362점보다 18점이 앞선 상황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현대차는 서킷용 경주차 'i30 N TCR'이 거둔 월드 투어링카 컵(WT

CR) 팀과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에 이어 비포장 노면으로 대표되는 랠리 대회마저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사회공헌 “通하였느냐”



기자 수첩

김 유 진  
(파이낸스&마켓부)

연말이 다가오면서 국내 기업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활동 보도자료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각 기업이 갖는 특색에 따라 회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어지면서 그 방법과 종류도 다양하다.

기업들의 사회봉사활동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기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쏟아내는 금액에 따라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규제, 특허 등의 정부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금융기관의 사회공헌활동 금액만 살펴봐도 이들이 투자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총금액은 많게는 수천억에도 넘는다. 비중으로 따져보면 실제로 1금융권인 은행들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공헌활동 금액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에서 큰 돈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주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연간 이익

을 감안하면 사회공헌 비중이 크지 않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명품' 회사의 경우 국내 사회공헌 수준이 생색내기엔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돈을 벌며 배당금으로 대부분 가져 간다는 지적이 해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물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는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알기 어렵지만, 기업 각자의 이익을 위한 기부라고 해도 어렸어 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결국 일석이조, 윈윈(win-win)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 사회공헌과 기부를 온갖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 배경 뒤에 그들의 연간 순이익 대비 기부금의 비중이 극히 적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사회공헌과 기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솔직한 심정을 접할 때 씁쓸한 생각이 든다.

결론은 온갖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본이라도 된 것 마냥 홍보를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아주 자그마한 제스처만 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소심한 의심이 가지지 않아서

다. /ujin6326@metroseoul.co.kr

# 에쓰오일, 한달간 60만명에 경품 이벤트

에쓰오일이 '구도일패밀리' 경품대잔치를 연다. 에쓰오일은 한 달간 주유소와 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좋은 기름으로 으라차차~ 구도일패밀리 경품대잔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에쓰오일 주유소에서 4만원 이상 주유(2만원 이상 LPG 충전)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60만명에게 ▲황금구도일(순금 75g, 1명) ▲김치냉

장고(5명) ▲라면(30만명) ▲주방세제(30만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주유고객은 보너스카드 적립 후 영수증 하단에서 당첨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에쓰오일 보너스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당첨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는 현장에서 지급되는 경품 패키지 속에 '러키 구도일 쿠폰'을 동봉해 추가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보너스 경품 이벤트도 진



에쓰오일에서 이달 13일부터 한 달간 '구도일패밀리 경품대잔치'를 진행한다. /에쓰오일

행된다. 당첨된 고객에게는 라면 한박스·주방세제 선물세트·구도일 캐릭터 상품 등 추가 경품이 제공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오늘의 운세 11월 14일 (음 10월 18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원하는 바가 없으면 겁낼 게 없다. 48년생 체면치레에 집안 경제가 거덜 나겠다. 60년생 부부간에도 배려와 존중을. 72년생 뒤통스 맞으면 운도 따르다. 84년생 지는 태양을 막을 도리는 없으나 내일 또 태양은 뜬다.
- 소** 37년생 꽃이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49년생 같이 사는 자녀의 도움을 고맙게 여겨라. 61년생 한 번을 참으면 만사가 편안한 법. 73년생 나의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즐겁다. 85년생 뒷사람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 호랑이** 38년생 작은 먼지로 눈이 매우 아프다. 50년생 후배의 협조로 위기를 모면. 62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될 것이다 외쳐라. 74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감수. 86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이 좋겠다.
- 토끼** 39년생 오래전 친구가 소식을 전해온다. 51년생 돈만 써대는 자식도 내 자식이니 어쩌나. 63년생 물도 조심해서 마셔라. 75년생 관재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은 금물. 87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 말** 40년생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52년생 일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려라. 64년생 행운이 손짓하는 날이니 과감한 선택도 무방. 76년생 기다림에 지쳐 목이 아프다. 88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 뱀** 41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53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65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 77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날. 89년생 뒤통스 맞으면 가슴 벅찬 행복이 온다.

- 말** 42년생 우물에서 송송 찾지 말고 매사 순서대로. 54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제거되니 후련하다. 66년생 자손이 상을 받게 되니 기쁘다. 78년생 물건을 새것이 좋으나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90년생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 양** 43년생 젊어서 모아두지 않아 새삼 아프게 느껴진다. 55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평온한 하루. 67년생 진취적 행동이 타인의 모범이 된다. 79년생 삶의 중심에 항상 자기 자신을 두라. 91년생 부모님 주책은 증여받을 일이 생긴다.
- 원숭이** 4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자재. 56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온다. 68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한 날. 80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남들의 질시를 받는다. 92년생 가까운 친구의 모함을 받게 되니 주의하라.
- 닭** 45년생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았다. 57년생 세상만사 새옹지마이니 일희일비는 금물. 69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 81년생 어제의 바람이 태풍으로 온다. 93년생 무리일지라도 응원하며 나아가라.
- 개** 46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기본 좋은 날. 58년생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70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부단히 노력. 82년생 야근으로 피곤한 날이니 외출을 자제. 94년생 고지가 눈앞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동.
- 돼지** 47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59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반드시 망신을 당한다. 71년생 산 좋고 물도 좋는데 내가 머물 곳은 아니다. 83년생 주황색 옷이 행운을 가져온다. 95년생 성실해야 미래가 편하다.



# 김상회의 四季

## 관이 많은 여자의 선택은

살아가면서 바라는 건 마음은 평안하게 재물은 풍족하게 살기를 바랄 것이다. 큰 명예를 원하지 않고 높은 자리를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게 우선이다. 고난이 이어지는 사람을 보고 흔히들 팔자가 세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말 그대로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조금은 덜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여자의 경우 사주에 관이 많으면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관이 센 여자는 남자에게 통제당하는 걸 힘겨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도 싫어한다. 남에게 기대지 않는 성향으로 추진력 또한 좋은 편이다. 그런 기질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뚜렷한 실적을 올리면서 좋은 평가를 얻는다. 그러나 가정생활은 다르다. 남편과의 사이는 풍파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관이 많은 사주의 기질적 특징이 가정에서도 발휘되면서 남편과 갈등이 생긴다.

부부싸움이 일상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별거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혼으로 안 좋은 매듭을 짓기도 한다. 팔자에 나를 극하는 오행 관성이 많으면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풀리곤 한다. 많은 관성을 스스로 당해내지 못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가부장적인 인식이 확고한 남자를 만난다면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으로 발전한다. 이런 고난을 피하기려면 남자를 만날 때 성격이 유순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람을 택해야 한다.

재차 얘기지만 외모보다는 마음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의 폭이 넓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다. 살아가면서 알 수 없지만 예견되는 풍파를 피하기려면 물러나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6	4		
7			8	9	4			5
1	4				7			
3			9		2		5	
		7					9	
	9				8		7	
	4			5		1		
8		5	6					
	7				9	5	4	3

	9						2	
8		2			1	3		4
	7			5			6	
2				4			5	
		7	9		8	6		
	4			2				8
	8			6			9	
6		9	8			1		5
	3							8

**스도쿠 정답**

8	7	5	6	8	1	2	9	4
2	9	6	4	7	9	5	1	8
9	8	1	2	5	3	7	6	4
3	4	8	9	7	6	1	8	5
5	6	2	7	1	8	9	4	3
6	9	8	2	5	7	1	3	4
7	9	8	1	6	9	2	5	8
1	2	5	8	4	9	6	7	3

문제 제공 = **보너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2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26호



# “개인정보 규제가 AI 발목... 어릴때 부터 코딩교육을”

뉴테크 포럼  
강연자 릴레이 인터뷰

1세대 AI 연구자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AI)이 SF 영화에서처럼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고 사람을 능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AI에 도전해 실패를 막으려면 AI에 대해 과다한 기대를 버리고 정확한 능력과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진형 중앙대학교 석좌교수는 11일 메트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의 AI는 강한(Strong) AI와 약한(Weak) AI 중 약한 AI에 불과하다”며 “컴퓨터는 정해진 분야에서는 빨리 능력을 발휘하지만 사람처럼 노래도 잘 하고, 바둑도 잘 하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감정을 갖는 AI가 과연 나올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영화처럼 AI가 감정 갖긴 어려워  
現 기술은 ‘약한 인공지능’ 불과

카이스트 명예교수, 인공지능연구원 고문이기도 한 그는 ‘1세대 인공지능 전문가’로 1985년부터 30년간 카이스트 교수로 일하면서 국내에서 처음 AI를 연구했으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인공지능연구원장도 역임했다.

그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젠테이션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 주최의 ‘2019 뉴테크 놀로지 포럼’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인공지능이 감정을 갖는다고 하는데, 감정은 자존번식과 생존을 위해 생

명체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기계는 감정을 흉내내는 데 불과합니다. 감정을 갖는 AI는 인공생명체로 봐야 하는데, 인공생명체는 인간을 패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협합니다.”

그는 약한(Weak) AI가 농업·반도체·의료·자동차 등에 적용돼 충분히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밭에서 잡초와 작물이 같이 자라는데 사람이 제조제를 잘못 뿌려서 작물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는 잡초에만 제조제를 뿌리고 작물에는 비료를 뿌리는 일을 잘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농도를 가진 미국에서는 AI를 활용해 기존에 사용했던 제조제의 10%만으로도 잡초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반도체 불량률 검사할 때 사람들이 눈으로 검사하지만 이를 AI가 잘 골라내는 경우를 들며, 반도체·의료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 AI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AI 기술 개발에서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등인 미국이 AI 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추격하고, 일본·영국·독일 등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10등이다, 15등이다 말하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아주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경쟁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AI가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1%에 불과해 이미 뒤져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중 14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교육을 시키

전 세계에서 개인정보 제재 가장 많아  
日·英·獨 바짝 추격하는 데 韓 답보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인공지능연구원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고 학생들이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정도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중국도 초등학교에서부터 AI 교육을 진행합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직접 코딩해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서야 합니다. 대학생들도 미디어학부를 다닌다 해도 컴퓨터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김진형 석좌교수는 해외에서는 공과대학의 절반이 컴퓨팅 전공인 곳도 있는데,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정원이 15년째 55명으로 제자리걸음이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에서 관련 전공 인원도 늘리고 학부도 ‘스쿨 오브 컴퓨팅(School of Computing)’과 같이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I 활성화에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규제가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제재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개인정보 이용에 문제가 없고, 일본도 우리보다 더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일단 개인정보를 모으고 이를 바로 비식별화(암호화)하면 컴퓨터가 몇백년을 돌려야 풀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푸는 게 불가능해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는 데이터를 잘못 수집하면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데이터 수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MS나 구글 등이 AI 원천기술을 공

개하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 기술을 가져다 자기 문제에 맞게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는 것은 소수의 탑클래스 개발자들만 담당하면 됩니다.”

그는 아직 AI 기술이 갖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AI가 주식종목 매수를 추천했을 때 ‘왜 그 종목을 사야 돼?’라고 질문하거나, 약을 썼을 때 ‘왜 이 약을 먹어야 돼?’라고 질문했을 때 전혀 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학전공 늘려 산업 파이 키우고  
AI 실업자 위한 취업교육 마련을

“AI는 0.00007 같은 숫자로는 얘기하지만 ‘닭이 울어서 해가 떴는지’, ‘해가 떠서 닭이 울었는지’와 같은 인과관계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주식 매매를 통해 대체로 이익을 내지만 항상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I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쓰인다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는 AI로 인해 단순 반복하는 일들이 없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또 변호사·약사·의사 등 직업이 없어지는 않겠지만 의사의 진단 업무는 AI가 잘 할 수 있고, 변호사 업무 중 자료를 찾는 일은 AI가 대체할 수 있어 100명 중에 10명만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AI로 인한 자동화로 직업을 잃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빛의 속도처럼 빠른 데, 사회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저하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AI기술 뿔뿔 나는 데 윤리규정은 ‘뜬구름 잡기’

정부, AI윤리원칙 가이드라인 발표  
기업서 참고하기엔 ‘추상적’ 지배  
세부규정 마련에 상당시간 걸릴 듯

기업들이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윤리’ 원칙이 국내에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틀의 개념만을 제시하고 있고, 세부규정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처음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실제 기업이 AI 개발시 참고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이를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 활용이 미미했다.

최근 더 구체적이고 기업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담은 AI 윤리원칙이 등장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의 인간과 AI의 관계를 최초로 선언한 ‘인공지능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가 이청호 협회장(세종대 교수), 전창배 이사장(아이오넵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윤리헌장’ 선포식 모습.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윤리헌장’이다. 윤리 헌장은 5개장 37개조로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나온 AI 윤리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이다. 윤리 헌장은 ▲인간과 AI의 관계 ▲선하고 안전한 AI ▲AI 개발자(기업) 윤리 ▲AI 소비자 윤리 ▲인류 공동의 책임 등 5개장으로 구성된다.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1조 6장에서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 특히 옹고그름의 판단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최근 AI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면접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AI 면접관이 응시자를 떨어뜨리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내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AI 판사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사형을

구형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인 판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윤리헌장’이 기업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기업들에게 널리 보급하기에는 기업·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윤리학·철학·컴퓨터공학 전공의 학계, 산업계, 변리사,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이 이사진으로 참여해 설립된 후, 기업·단체 등 다양한 회원사들을 모집 중에 있다.

지난 1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AI 시대 이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AI 윤리를 마련한다고 밝혀왔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대신 ‘지능정보서비스’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의 인공지능 윤리헌장이 5장을 추가 설명하는 37개의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윤리 가이드라인도 4개

의 공통원칙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는데 반해, 방통위의 지능정보서비스의 기본 원칙 총 7개 문장만으로 구성돼 세부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AI 기업들은 방통위가 정부 차원에서 최초의 AI 윤리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너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직접적인 지침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큰 틀의 원칙만 발표했지만 앞으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초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상시적인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의 AI 윤리는 필요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AI 일부 관계자들은 AI 산업의 주무부처로 볼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윤리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는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연구 등을 통해 AI 윤리 제정이 필요한 지 검토하고 있지만, 방통위에 비해 아직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미래금융 위시리스트

- 국내에서 쌓은 포인트를 해외에서도 쓸 수 있을까?
- 해외에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싶다

손님의 기대  
하나 하나를 모아  
더 세계적인 금융을 만듭니다

손님의 무대가 넓어진 만큼 금융의 능력도 커져야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더 세계적인 미래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해외에서 국내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글로벌 지급결제 플랫폼



해외에서도 휴대폰 터치만으로 결제하는  
해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 은희삼 대표, 대통령 표창장 수상

(행복이 가득한 드림영농조합)

## 24회 농업인의날 기념식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

은희삼 행복이가득한드림영농조합 법인 대표이사는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농촌 활성화와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장을 수상했다.

2012년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6차사업을 통하여 소득증대 도모함을 목적으로 행복이가득한드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데 대표로 참여하여 시설장비 지원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6차사업과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7년에 들녘경영체육



은희삼 수상자 부부

성사업인 시설장비에 선정되어 공동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이 후 낮은 소득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논에 조생벼와 타작물인 콩 2기작으로 메밀등을 육묘하여 고소득 창출에 선도 농업인으로 앞장서왔다.

/은하수 기자 ehs1203@



새단장 한 섬진강 자전거길

/곡성 군청

## 섬진강 자전거길, 노후구간 '새단장'

곡성군 오곡면~두가 세월교 구간 국비 2억 투입, 포장·도색 등 실시

곡성군이 국비 2억원을 들여 섬진강 자전거길 종주 노선과 순환 노선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정을 통해 곡성군은 오곡면 SK주유소에서 두가 세월교까지 6.2km 구간에 아스콘 포장, 안전난간 설치, 차선 및 방

호벽 도색을 실시했다. 그동안 노후됐던 섬진강 자전거 도로가 정비됨으로써 이용자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 미뒀던 방호벽을 무지개색으로 새롭게 단장한 두가 자전거도로 구간은 많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 광주시, 관광정책 '新 플랫폼' 설립 추진

광주시가 민관 관광정책 플랫폼이 될 가칭 광주관광재단을 설립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 출연 기관으로 관광재단을 신설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조만간 마치는 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출자·출연기관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관광재단은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관광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도 최근 광주시와 협의에서 업무 중복성 해소와 함께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지침 이행, 장기적 관점의 경제성 검토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차정준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0 | 해질 / 17:22

11월 14일 (木) 음력 : 10월 18일

수도권 날씨 **-3 ~ 5°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7/4, 동두천 -5/4, 가평 -5/5, 파주 -6/4, 서울 -3/5, 양평 -4/6, 인천 -1/5, 수원 -2/5, 용인 -2/5, 평택 -3/6, 백령도 1/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 광주시 2020년 문화중심도시 사업 콘텐츠 부족

# “특별법 개정해 국비지원 늘려야”

16년간 집행된 국비 48.8% 국비 반영 사업 절반도 안돼 “지원 통해 신규사업 확대”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서구2)은 13일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기간이 4년 밖에 남지 않았으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20

년간 진행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총사업비 5조2912억원(국비 2조7679억원, 시비 7896억원, 민자 1조7337억원)을 투입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까지 16년 간 집행된 예산은 국비 1조3510억원(48.8%), 시비 1284억원(16.3%)에 그쳤으며, 민자유치는 794억원(4.6%)에 그치고 있다.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23개 사업을 계획했으나 실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은 11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도 특별법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고, 2023년이면 국비 지원도 중단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예산 투입이 저조하다 보니 문화전당을 건립하고도 콘텐츠가 부족해 ‘빈 깡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을 개정해 국비 지원을 늘리고 신규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 인천공항공, 항공·물류분야 인재 육성 앞장

9개 대학과 산학협력 체결 학교당 1억씩, 총 9억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국내 항공, 물류분야를 선도하는 9개 대학과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각 학교당 1억 원 씩, 총 9억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체결식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포함해 공사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9개 대학의 총장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열렸다. 공사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9개 대학은 경성대학교, 목포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원대학교, 초당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의 사



국내 9개 대학간 산학협력협약 체결 사진

회적 가치 확대 및 항공, 물류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2년부터 항공, 물류 선도 대학에 발전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공사는 발전기금 규모를 9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 학교를 지난해 3개 대학에서 9개 대학으로 대폭 확대해 국내 항공물류분야 청

년 인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지원하는 발전기금은 비행 조종훈련생의 실습을 위한 교육용 항공기와 비행 시뮬레이터 구입 등 각 대학에 필요한 학습기자재 구입과 강의실 등 학습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식중독)

인천시 15건 중 14건 집단 생활시설서 발생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겨울철 식중독의 주된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표본감시사업’을 수행하여 식

중독 원인 병원체의 유행양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을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생활시설에서의 주변 환경까지 확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9년 현재까지 연구원으로 의뢰된 식중독 원인 병원체를 검사한 결과, 35건 중 15건(42.9%)이 노로바이러스로 밝혀졌으며, 15건 중 14건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기관의 환자감시 현황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천=최영주기자 choijj@





【뉴스】 국내최대 게임박람회 '지스타' 개막 하반기 시장 패권 가린다 02



Life

【AI 뉴스】 김진형 중앙대 교수 "개인정보 규제 발목 어릴때부터 코딩교육" L4



# ★ 하나에 떠는 '플랫폼 노동자'... 평가방식 개선 시급

(별점 평가)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음식 배달원의 절반가량은 주당 노동시간이 53시간 이상이며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은 36.5%나 된다. 고객 평가 점수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용불안정을 더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별점 평가제를 뜯어고쳐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가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플랫폼 노동문제 해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객 평점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 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이날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총 361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쌍방향 평점제 도입 ▲부당 평가 모니터링 강화 ▲플랫폼 노동자 배려 문화 캠페인 실시 ▲별점 평가 항목 세분화 등

의 대안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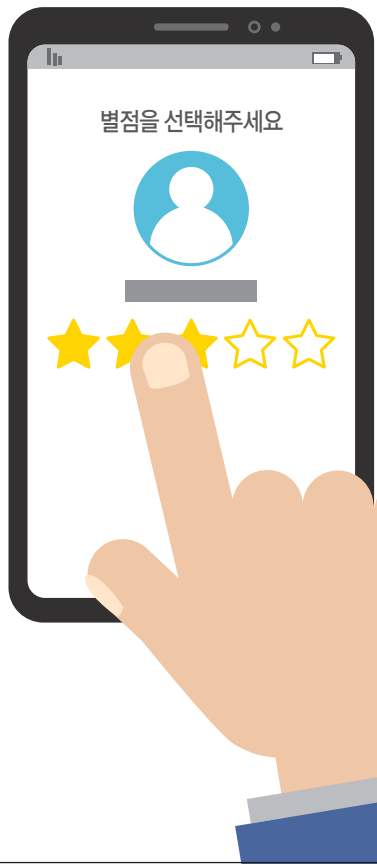
시민 최모 씨는 "에어비앤비 등 일부 플랫폼은 호스트도 숙박객의 이용태도를 평가할 수 있고 숙박객도 호스트의 태도와 장소를 평가하는 쌍방향 평점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안 좋은 호스트를 가려낼 수 있지만 악성 숙박객 또한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플랫폼 노동자 또한 플랫폼에서 일을 주는 사업주와 이용 고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단순하게 고객의 평가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향의 평가를 종합해 활용한다면 현재보다는 부당한 평점의 영향력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방향 평점제는 전체 360여개 의견 중 20명의 공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서모 씨는 "모든 제도에는 양과 음이 있기 마련"이라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평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체측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터링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13명의 공감을 얻었다.

플랫폼 노동자 배려 문화 캠페인 확

서울시민, 고객 평점제 보완해야 쌍방 평점제 도입 등 대안 내놔 근로환경·보험 등 근본적 문제도



산은 공감 3위(9명)를 기록했다. 나모 씨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 운동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한다"며 "기업들이 고객 평점을 바탕으로 배달노동자에게 일거리를 주는 가혹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기업도 가혹한 별점 테러건은 평점 통계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객 평점제 보완이 아닌 근로환경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 문모 씨는 "일방향이든 쌍방향이든 평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근로형태의 불안정함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며 "현재 배달대행업체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1인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통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 경제 종사자 특성 분석'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 보험 가입 비율은 34.4%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비율(7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

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원은 "플랫폼 노동, 새로운 위험사회를 알리는 징후"에서 "노동자를 ICT 플랫폼에 불러들여오로지 콜별·건별로 노동력을 추출하는 방식은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위험의 개인화"라며 "고용관계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성을 지워내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영선 연구원은 "배달 앱 소속"이라는 문구에서 보듯 자본은 신기술을 활용해 고용계약 관계를 사업계약 관계로 바꿔내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책임 회피, 비용 삭감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제별 역할과 대책은?'을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토론회를 연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대각선 횡단보도로 '걷기 편한 서울' 만든다 "미세먼지 잡아라" 서울시, 특별단속반 운영

2023년까지 240개로 확대

서울시가 보행자 편의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2배로 늘린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를 240개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120개에서 2배로 늘리는 셈이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에서 보행자들이 대각선 방향으로 바로 건널 수 있다. 별도의 보행전용 신호로 보행자는 한 번에 바로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며, 모든 차량이 완전히 정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 시내 교차로 5700곳을 전수 조사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가능 지역 516곳을 파악했다. 내년부터 연간 30개 이상씩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는 지선이 나 이면도로 등 좁은 도로 위주로 설치



연세대 삼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서울시

됐으나 앞으로는 간선도로 등 넓은 도로에도 생긴다. 내년 설치할 연세대 정문 앞, 종로구청입구사거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보행 신호를 가변적으로 운영해 차량 정체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객 이동 수

요, 출퇴근 수요 등으로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보행량 차이가 큰 도심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한양도성 내부 지역인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먼저 시간제·요일제 신호체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시행되면 이는 국내 최초다. /김현정 기자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사업장 단속

서울시는 12월부터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은 서울시 10개 미세먼지 단속반과 자치구 25개 단속반 등 총 35개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자치구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교통·산업·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단속반은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3개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야 3개반, 건설현장 분야 4개반으

로 편성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현장에 투입된다.

배출가스 단속반은 전용차량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해 차고지, 물류센터와 같은 차량밀집지역의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공회전 단속반은 서울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열화상카메라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적발한다.

산업분야 단속반은 자동차정비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금속가공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설현장 단속반은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금속연마사업장 등에 대해 먼지 발생예방 덮개설치, 세륜시설 설치와 가동여부 등을 조사한다. /김현정 기자

## 서울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서울시 고시원 운영자와 업무협약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해야 한다.

서울시는 노후고시원 57곳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하고 고시원 운영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시가 확보한 추경 예산 12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을 받는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 완료 후

시는 올해 상반기 노후 고시원 65곳을 선정하고 15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고시원은 이달 말까지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는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일부 의료

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지어진 지 오래된 고시원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344곳의 노후고시원에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지원 액수는 62억원에 달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민원 요청 등 행정 혼선 해소될 것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으로 이원화됐던 경기 수원일반산업단지(수원델타플렉스)의 지정권과 관리권이 수원시장으로 일원화됐다.

수원시는 '수원델타플렉스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수원델타플렉스 1·2·3블록 지정권자와 관리권자를 수원시장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절차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도 경기도와 수원시에 민원이나 요청을 나

뉘서 해야 했던 기업들의 불편과 산업단지 관련 사업 추진 시 벌어지던 행정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블록별로 지정권·관리권이 달라 벌어지는 혼선과 기업불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2016년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산업단지 통합을 건의했다.

경기도가 마침내 지난 7월 19일 수원시에 수원델타플렉스 지정권·관리권 통합을 요청했고, 수원시는 수원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요청안을 의결했다. /수원=김승열 기자 kimsy@



SAMSUNG

Galaxy Fold 5G

# 갤럭시, 무한한 자유를 펼치다



## 갤럭시 폴드 5G 일반 판매 시작!

특별한 혜택과 함께 지금 바로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디스플레이 파손 수리비 70% 보상 (1회 한정)

·대상 : 2019.9.6 이후 갤럭시 폴드 5G를 신규로 구매 및 개봉하고 [폴드 Advantage+] 혜택을 신청한 고객

**2** 갤럭시 폴드 5G 고객 전용 프리미엄 상담 서비스 제공

\* 디스플레이 파손 범위와 관계 없이 1회 수리비만 보상 • 이통사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통사 보험 보상처리 후 발생한 자기부담금의 70%를 지원 • 디스플레이 파손 관련 수리비 및 부품비에 한해 보상 가능  
\* 삼성전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및 파손 디스플레이 무상 반납 조건 •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https://www.samsung.com/sec/advantageplus/>)을 참조하세요 • 행사 상세 내용 확인 방법 및 본 행사는 예고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